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귀중

2009년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 보고서

2009. 8

(주)한국리서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19 한미빌딩 2-7층
전 화 : 02-3014-0083
팩스번호 : 02-3014-0775
홈페이지 : www.hrc.co.kr

목 차

제 1 장. 조사개요	4
1. 조사배경 및 목적	5
2. 조사설계	6
3. 조사내용	7
4. 응답자 구성	9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10
제 3 장. 조사결과	16
1.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17
1)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19
2.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	19
1) 사회적 요인 -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19
2) 사회적 요인 - 경제적 문제	21
3) 관계적 요인 -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23
4) 관계적 요인 -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25
5) 스트레스 관리 요인 -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27
6) 스트레스 관리 요인 -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29
7) 스트레스 해소 요인 -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여부	31
8) 스트레스 해소 요인 - 대인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여부	33
3. 우울증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35
1) 우울증 경험 유무	35
2)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경험	37
3)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대상	39
4)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하지 않은 이유	41

4. 초/중/고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 등에 대한 부모 인식 및 도움 요청 대상	42
1) 자녀의 집중도 문제	42
2) 자녀와 가족 간의 대화 문제	43
3) 학교에서의 자녀와 친구들 간의 관계 문제	44
4) 자녀가 학업이나 친구관계로 받는 스트레스 문제	45
5) 자녀의 기분 관련 문제	46
6)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 관련 문제	47
7) 자녀문제 경험 시 도움 요청 경험	48
8) 자녀문제 경험 시 도움 요청 대상	50
9) 자녀문제 경험 시 도움 요청 하지 않은 이유	51
5. 음주문제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52
1)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경험	52
2)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험	54
3)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험	56
4)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경험	58
5)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가족 경험자	60
6)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가족 경험자	61
7)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가족 경험자	62
8)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가족 경험자	63
9) 음주 관련 도움 요청 경험	64
10) 음주 관련 도움 요청 대상	66
6. 자살 시도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67
1) 자살 생각 경험	67
2) 자살 시도 경험	69
3) 자살 시도 시 도움 요청 경험	71
4) 자살 시도 시 도움 요청 대상	72

7. 스트레스, 음주, 우울증 등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73
1) 스트레스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73
2)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75
3) 우울증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77
8.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및 이용의향	79
1)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79
2) 정신건강에 관한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의향	81
3) 정신건강 관련 이용할 의향이 있는 서비스 종류	83
4)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 인지 여부	85
9. 정신질환자 수용 관련 태도	87
1)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필요성에 대한 태도	87
2)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수용에 대한 태도	89

부록. 조사결과표 조사설문지

제 1 장 조 사 개 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설계
3. 조사내용
4. 응답자 구성

1. 조사배경 및 목적

- 모든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은 30.0%로서 10명당 3명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임.(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남자 38.2%, 여자 21.7%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더 높음.
 - 주요 정신질환별 평생유병율을 보면, 알코올사용장애가 16.2%, 정신병적장애가 0.5%, 기분장애가 6.2%(주요우울장애 5.6%), 불안장애가 6.4%임.
 -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1.4%이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임. (미국의 경우, 2003년 이용율이 27.8%임: NCS-R)
- 최근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정신질환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등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또한 웰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일반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의 예방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경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가 요구됨.
- 본 조사는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인지도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자,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수준은 어떠한지 △우울증, 자살 충동, 알코올 문제 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녀의 정신건강은 어떠한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을 알고,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함.

2.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모집단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5~65세 남녀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추출	● 2008년 12월 31일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조사기간	● 2009. 8. 3- 8. 10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3.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스트레스 관련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가정/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 정도 ● 대인 관계 관련 스트레스 정도 ● 고민 상담자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 화와 같은 감정 조절 관련 스트레스 정도 ●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동석자 없는 TV 시청, 인터넷 선호 여부 ● 기분 전환을 위한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여부
우울증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 이상 기분이 우울하여 의욕이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사도 못한 경험 유무 ● 기분이 우울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경험 ● 기분이 우울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대상 ● 기분이 우울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초.중.고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 등에 대한 부모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매우 산만한지 여부 ● 자녀가 집에 오면 자기 방에만 혼자 있고 가족과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지 여부 ● 자녀가 학교에서 전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지 여부 ● 자녀가 학업이나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지 여부 ● 자녀가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하는 경향이 자주 반복되는지 여부 ● 자녀가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인터넷이나 게임에 너무 몰두하는지 여부
자녀문제 유무 및 도움 요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에게 심리/정서/행동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경험 ● 자녀에게 심리/정서/행동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대상 ● 자녀에게 심리/정서/행동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구 분	내 용
본인의 음주 문제 경험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경험 유무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험 유무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험 유무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경험 유무
가족의 음주 문제 경험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가족 경험자 유무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가족 경험자 유무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가족 경험자 유무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가족 경험자 유무
음주 관련 도움 요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와 관련한 도움 또는 상담 요청 경험 음주와 관련한 도움 요청 대상
자살 시도 및 도움 요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경험 유무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경험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도움 또는 상담 요청 대상
스트레스 /음주/우울증 을 질병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트레스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우울증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및 이용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이나 진단 등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의향 정신건강 관련 이용할 의향이 있는 서비스 종류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 인지 여부
정신질환자 수용 관련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필요성에 대한 태도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수용에 대한 태도

4. 응답자 구성

Base=전체	사례수 (명)	%
■ 전 체 ■	(1000)	100.0
○ 성 별 ○		
남 자	(499)	49.9
여 자	(501)	50.1
○ 연 령 ○		
10대 (15세-19세)	(84)	8.4
20대	(217)	21.7
30대	(242)	24.2
40대	(218)	21.8
50대	(172)	17.2
60대 (60세-65세)	(67)	6.7
○ 거 주 지 역 ○		
도시/서북지역	(163)	16.3
중부지역	(322)	32.2
남부지역	(348)	34.8
강남 3구	(167)	16.7
○ 학 령 ○		
초·중·고	(75)	7.5
대학 재학	(281)	28.1
대학 졸업	(640)	64.0
모름 / 무응답	(4)	.4
○ 직 업 ○		
사무/관리/전문직	(315)	31.5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10.2
생산/기술/노무직	(39)	3.9
자영업	(130)	13.0
학생	(158)	15.8
주주/퇴직/기타	(178)	17.8
모름 / 무응답	(72)	7.2
○ 월 가 구 소 ○		
99만 원 이하	(44)	4.4
100 - 199만 원	(112)	11.2
200 - 299만 원	(193)	19.3
300 - 399만 원	(203)	20.3
400 - 499만 원	(144)	14.4
500만 원 이상	(207)	20.7
모름 / 무응답	(97)	9.7
○ 경 제 수 준 ○		
상	(55)	5.5
중	(743)	74.3
하	(196)	19.6
모름 / 무응답	(6)	.6
○ 종교 ○		
기독교	(292)	29.2
천주교	(126)	12.6
불교	(131)	13.1
기타 종교	(7)	.7
종교없음 (무교)	(444)	44.4
○ 혼 인 상 태 ○		
혼인	(407)	40.7
미혼	(581)	58.1
기타	(12)	1.2
○ 신체적건강상태 ○		
건강	(551)	55.1
보통	(377)	37.7
불건강	(72)	7.2
○ 정신적건강상태 ○		
건강	(647)	64.9
보통	(297)	29.8
불건강	(53)	5.3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2009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요약

◎ 스트레스 체감 수준이 매우 높은 초위험군은 3.7%임.

- 스트레스 체감 수준이 매우 높은 '초위험군'은 3.7%, '고위험군'은 32.9%, '위험군'은 54.5%, '저위험군'은 8.9%임.

위험군 유형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37)	3.7
고위험군	(329)	32.9
위험군	(545)	54.5
저위험군	(89)	8.9

◎ 4가지 스트레스 위험 요인 중 사회적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음.
(단위 : %)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름/ 무응답	계
사회적 요인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59.3	40.5	0.2	100.0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45.4	54.5	0.1	100.0
관계적 요인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29.0	71.0	0.0	100.0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21.6	78.2	0.2	100.0
스트레스 관리 요인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17.5	82.2	0.3	100.0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지 못하는 편이다	27.8	72.1	0.1	100.0
스트레스 해소 요인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13.1	86.6	0.3	100.0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	24.4	75.2	0.4	100.0

-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로 인해 59.3%,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45.4%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함.
- 관계적 요인 중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29.0%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21.6%가 '심각한 고민을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함.
- 스트레스 관리 요인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가 있다'에 17.5%, '스트레스를 받아도 쉽게 스트레스를 풀어내지 못하는 편이다'에 27.8%가 그렇다고 응답함.
- 스트레스 해소 요인 중에서는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에 13.1%,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을 선호한다'에 24.4%가 그렇다고 응답함.

◎ 금년에 우울증을 경험한 응답자 232명 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73명(31.5%)임.

구분	비율 (%)
친구	49.3
가족이나 친지	24.7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성직자	9.6
일반 병원이나 의원(정신과 전문의 제외)	6.8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	6.8
일반 사회단체의 상담센터	2.7

- 친구(49.3%)에게 가장 많이 도움 및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지(24.7%),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성직자(9.6%) 등의 순임.
-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라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음.

◎ 전체 응답자 중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는 256명임. 6가지 자녀 문제 중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매우 산만하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음.

(단위: %)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	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매우 산만하다	37.9	61.3	0.8	100.0
집에 오면 자기 방에만 혼자 있고 가족과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	6.6	93.0	0.4	100.0
학교에서 전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낸다	3.1	96.1	0.8	100.0
학업이나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많이 받는다	18.8	78.9	2.3	100.0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하는 경향이 자주 반복된다	19.5	79.3	1.2	100.0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인터넷이나 게임에 너무 몰두하는 편이다	24.2	75.4	0.4	100.0

*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대상임.

◎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 144명 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28명(19.4%)임.

- 자녀문제 경험 시 '학교의 상담센터나 선생님'(32.1%)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지'(17.9%),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17.9%) 등의 순임.
-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라는 응답이 56.0%로 가장 많았음.

- ◎ 본인 스스로 음주 관련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 중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가 3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25.1%)고 응답함.

(단위: %)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	해당 없음	계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25.1	64.5	0.3	10.1	100.0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7.9	82.0	0.3	9.8	100.0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	31.5	58.5	0.2	9.8	100.0
술을 끊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2.3	87.7	0.2	9.8	100.0

- ◎ 음주 관련 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가족이 있다’는 응답이 30.0%로 가장 높음.

(단위: %)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	해당 없음	계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가족이 있다	30.0	64.3	0.3	5.4	100.0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되는 가족이 있다	10.3	84.2	0.2	5.3	100.0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하는 가족이 있다	24.7	67.7	2.4	5.2	100.0
술을 끊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가족이 있다	2.7	91.4	0.4	5.5	100.0

- ◎ 음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우는 25명(2.5%)임. 도움 받은 대상으로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지(24.0%), 일반 병원이나 의원(16.0%) 등의 순임.

- ◎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응답자는 175명(17.5%)이었으며, 이 중 구체적으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6명(9.1%)임.

- 자살 시도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응답자는 5명(31.2%)이며, 가족이나 친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60%(3명)로 높음.

- ◎ 응답자 대부분이 스트레스 및 과도한 음주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음. (단위: %)

구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	계
스트레스도 심각한 질병이다	88.1	10.8	1.1	100.0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도 질병에 해당한다	91.6	7.4	1.0	100.0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89.2	8.4	2.4	100.0

- ◎ 정신보건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46명(24.6%)이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613명(61.3%)임.

-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로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라는 응답이 67.9%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세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40.0%), ‘자녀의 정신건강 상담이나 서비스’(37.5%) 등의 순임.

구분	비율 (%)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67.9
우울증세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40.0
자녀의 정신건강 상담이나 서비스	37.5
알코올존성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19.1
자살예방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13.9
모름/무응답	4.6

- ◎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0%임.

- ◎ 전체 응답자의 83.9%가 ‘정신질환자도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1.1%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함.

제 3 장 조사결과

1.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2.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
3. 우울증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4. 초/중/고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 등에 대한 부모 인식 및 도움 요청 대상
5. 음주문제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6. 자살 시도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7. 스트레스, 음주, 우울증 등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8.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및 이용의향
9. 정신질환자 수용 관련 태도

1. 스트레스 위험군 분류

1)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 위험군 분류 방법

문1-1번부터 문1-8번까지의 응답 중 ‘정말 그렇다’라는 응답이 0개 또는 1개는 ‘저위험군’으로, 2개 또는 3개는 ‘위험군’으로, 4개 또는 5개는 ‘고위험군’으로, 6개 이상 응답자는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함.

*단 문1-6번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정말 그렇다’로 변환하여 분류함.

〈표1〉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초고위험군	(37)	3.7
고위험군	(329)	32.9
위험군	(545)	54.5
저위험군	(89)	8.9
합계	(1000)	100.0

문1-1번: 직장, 가정,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문1-2번: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문1-3번: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

문1-4번: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문1-5번: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문1-6번: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

문1-7번: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문1-8번: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전 체

- 스트레스로 체감 수준이 매우 높은 초위험군은 3.7%임.
- 그 밖에 고위험군 32.9%, 위험군 54.5%, 저위험군 8.9%로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초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 위험군과 저위험군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표2〉 스트레스 체감 수준에 따른 위험군 분류

(단위 : %)

	사례수 (명)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위험군	저위험군	계
전체	(1000)	3.7	32.9	54.5	8.9	100.0
성별						
남자	(499)	4.0	35.1	51.9	9.0	100.0
여자	(501)	3.4	30.7	57.1	8.8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0.0	14.3	69.0	16.7	100.0
20대	(217)	1.8	29.5	58.1	10.6	100.0
30대	(242)	3.3	36.8	55.4	4.5	100.0
40대	(218)	5.0	38.5	49.1	7.3	100.0
50대	(172)	5.2	33.7	51.2	9.9	100.0
60대 (60세~65세)	(67)	7.5	32.8	47.8	11.9	100.0
학력						
중졸 이하	(75)	5.3	32.0	49.3	13.3	100.0
고졸	(281)	3.9	31.3	56.2	8.5	100.0
대재이상	(640)	3.3	33.6	54.5	8.6	100.0
모름/무응답	(4)	25.0	50.0	25.0	0.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2.9	36.5	50.8	9.8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6.9	39.2	51.0	2.9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5.1	46.2	41.0	7.7	100.0
자영업	(130)	7.7	36.2	52.3	3.8	100.0
학생	(158)	0.6	18.4	65.8	15.2	100.0
주부	(178)	3.9	26.4	59.6	10.1	100.0
무직/퇴직/기타	(72)	1.4	43.1	48.6	6.9	100.0
모름/무응답	(6)	0.0	33.3	66.7	0.0	100.0
경제수준						
상	(55)	0.0	16.4	67.3	16.4	100.0
중	(743)	2.7	29.6	58.3	9.4	100.0
하	(196)	8.7	49.5	36.7	5.1	100.0
모름/무응답	(6)	0.0	50.0	50.0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1.3	24.5	61.3	12.9	100.0
보통	(377)	5.6	41.6	49.1	3.7	100.0
좋지 않은 편	(72)	12.5	51.4	30.6	5.6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1.5	23.5	62.6	12.4	100.0
보통	(297)	6.7	48.1	42.4	2.7	100.0
좋지 않은 편	(53)	13.2	60.4	24.5	1.9	100.0

2. 스트레스 요인별 체감 수준

1) 사회적 요인 -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문1)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1)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표3〉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152)	15.2
대체로 그런 편이다	(441)	44.1
별로 그렇지 않다	(340)	34.0
전혀 그렇지 않다	(65)	6.5
모름/무응답	(2)	0.2
합계	(1000)	100.0

전체

- ‘직장, 가정,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15.2%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4.1%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59.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40.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직장, 가정,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40대(67.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10대(58.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4〉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문제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모름	계		
전체	(1000)	15.2	44.1	59.3	34.0	6.5	40.5	0.2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3.6	38.1	41.7	45.2	13.1	58.3	0.0	100.0
20대	(217)	12.4	42.9	55.3	38.7	5.5	44.2	0.5	100.0
30대	(242)	16.9	48.3	65.3	31.4	3.3	34.7	0.0	100.0
40대	(218)	18.3	48.6	67.0	25.7	6.9	32.6	0.5	100.0
50대	(172)	16.9	43.6	60.5	32.0	7.6	39.5	0.0	100.0
60대 (60세~65세)	(67)	17.9	26.9	44.8	46.3	9.0	55.2	0.0	100.0
성별									
중·고·대	(75)	18.7	37.3	56.0	33.3	10.7	44.0	0.0	100.0
출생지	(281)	17.1	43.1	60.1	31.7	7.8	39.5	0.4	100.0
대·재·이·상	(640)	13.9	45.3	59.2	35.2	5.5	40.6	0.2	100.0
모름/무응답	(4)	25.0	50.0	75.0	25.0	0.0	25.0	0.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17.5	47.6	65.1	31.1	3.8	34.9	0.0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22.5	47.1	69.6	23.5	5.9	29.4	1.0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17.9	46.2	64.1	25.6	10.3	35.9	0.0	100.0
자영업	(130)	23.1	43.1	66.2	31.5	2.3	33.8	0.0	100.0
학생	(158)	3.8	40.5	44.3	43.7	12.0	55.7	0.0	100.0
주부	(178)	11.8	38.8	50.6	40.4	8.4	48.9	0.6	100.0
무직/퇴직/기타	(72)	12.5	47.2	59.7	33.3	6.9	40.3	0.0	100.0
모름/무응답	(6)	16.7	33.3	50.0	33.3	16.7	50.0	0.0	100.0
경제수준									
상층	(55)	10.9	30.9	41.8	45.5	12.7	58.2	0.0	100.0
중층	(743)	13.1	45.2	58.3	35.4	6.1	41.5	0.3	100.0
하층	(196)	25.0	43.9	68.9	25.0	6.1	31.1	0.0	100.0
모름/무응답	(6)	0.0	33.3	33.3	50.0	16.7	66.7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11.4	37.4	48.8	42.8	8.2	51.0	0.2	100.0
보통	(377)	17.8	53.8	71.6	24.4	3.7	28.1	0.3	100.0
좋지 않은 편	(72)	30.6	44.4	75.0	16.7	8.3	25.0	0.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11.3	40.3	51.6	40.6	7.4	48.1	0.3	100.0
보통	(297)	19.2	52.9	72.1	23.2	4.7	27.9	0.0	100.0
좋지 않은 편	(53)	41.5	41.5	83.0	11.3	5.7	17.0	0.0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고위험군	(37)	67.6	29.7	97.3	2.7	0.0	2.7	0.0	100.0
고위험군	(329)	28.0	60.5	88.4	11.2	0.3	11.6	0.0	100.0
위험군	(545)	6.4	41.1	47.5	47.2	5.0	52.1	0.4	100.0
저위험군	(89)	0.0	7.9	7.9	50.6	41.6	92.1	0.0	100.0

2) 사회적 요인 - 경제적인 문제

문1)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7)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표5〉 경제적인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136)	13.6
대체로 그런 편이다	(318)	31.8
별로 그렇지 않다	(376)	37.6
전혀 그렇지 않다	(169)	16.9
모름/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전체

-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13.6%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1.8%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45.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54.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도심/서북지역 거주자(50.3%) △생산/기술/노무직(61.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강남3구 거주자(65.9%) △주부(68.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6〉 경제적인 문제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계
전체	(1000)	13.6	31.8	45.4	37.6	16.9	54.5	0.1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2.4	26.2	28.6	29.8	41.7	71.4	0.0	100.0
20대	(217)	12.0	33.6	45.6	41.0	13.4	54.4	0.0	100.0
30대	(242)	14.0	36.4	50.4	36.4	13.2	49.6	0.0	100.0
40대	(218)	15.6	31.7	47.2	38.5	14.2	52.8	0.0	100.0
50대	(172)	17.4	27.9	45.3	38.4	15.7	54.1	0.6	100.0
60대 (60세~65세)	(67)	14.9	26.9	41.8	35.8	22.4	58.2	0.0	100.0
거주지역									
도심/서북지역	(163)	14.7	35.6	50.3	34.4	15.3	49.7	0.0	100.0
동북부지역	(322)	14.6	32.6	47.2	36.6	15.8	52.5	0.3	100.0
남부지역	(348)	14.1	32.8	46.8	36.5	16.7	53.2	0.0	100.0
강남3구	(167)	9.6	24.6	34.1	44.9	21.0	65.9	0.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12.1	33.0	45.1	43.8	11.1	54.9	0.0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25.5	28.4	53.9	33.3	12.7	46.1	0.0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25.6	35.9	61.5	23.1	15.4	38.5	0.0	100.0
자영업	(130)	24.6	33.8	58.5	29.2	11.5	40.8	0.8	100.0
학생	(158)	4.4	32.3	36.7	32.9	30.4	63.3	0.0	100.0
주부	(178)	6.2	25.3	31.5	47.2	21.3	68.5	0.0	100.0
무직/퇴직/기타	(72)	15.3	38.9	54.2	27.8	18.1	45.8	0.0	100.0
모름/무응답	(6)	16.7	50.0	66.7	16.7	16.7	33.3	0.0	100.0
경제수준									
상	(55)	0.0	12.7	12.7	43.6	43.6	87.3	0.0	100.0
중	(743)	7.8	32.6	40.4	41.9	17.6	59.5	0.1	100.0
하	(196)	39.8	33.2	73.0	19.9	7.1	27.0	0.0	100.0
모름/무응답	(6)	0.0	66.7	66.7	33.3	0.0	33.3	0.0	100.0
신체건강상태									
좋은 편	(551)	9.1	31.2	40.3	38.8	20.9	59.7	0.0	100.0
보통	(377)	15.9	34.5	50.4	37.7	11.7	49.3	0.3	100.0
좋지 않은 편	(72)	36.1	22.2	58.3	27.8	13.9	41.7	0.0	100.0
정신건강상태									
좋은 편	(647)	9.3	30.6	39.9	40.0	20.1	60.1	0.0	100.0
보통	(297)	21.2	33.3	54.5	34.7	10.4	45.1	0.3	100.0
좋지 않은 편	(53)	24.5	35.8	60.4	26.4	13.2	39.6	0.0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고위험군	(37)	59.5	24.3	83.8	8.1	8.1	16.2	0.0	100.0
고위험군	(329)	28.0	38.9	66.9	27.4	5.8	33.1	0.0	100.0
위험군	(545)	4.0	32.1	36.1	46.2	17.4	63.7	0.2	100.0
저위험군	(89)	0.0	6.7	6.7	34.8	58.4	93.3	0.0	100.0

3) 관계적 요인 -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문1)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8)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표7〉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59)	5.9
대체로 그런 편이다	(231)	23.1
별로 그렇지 않다	(470)	47.0
전혀 그렇지 않다	(240)	24.0
모름/무응답	(0)	0.0
합계	(1000)	100.0

전체

-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5.9%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3.1%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29.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71.0%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40대 (32.6%) △사무/관리/전문직(34.9%) △월가소득 99만원이하 (40.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10대 (82.1%) △학생(78.5%) △월가소득 100만원-199만원(76.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8〉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전체	(1000)	5.9	23.1	29.0	47.0	24.0	71.0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1.2	16.7	17.9	48.8	33.3	82.1	100.0
20대 (20~29세)	(217)	4.6	22.1	26.7	44.2	29.0	73.3	100.0
30대 (30~39세)	(242)	6.2	25.6	31.8	52.9	15.3	68.2	100.0
40대 (40~49세)	(218)	6.9	25.7	32.6	45.9	21.6	67.4	100.0
50대 (50~59세)	(172)	7.0	24.4	31.4	43.0	25.6	68.6	100.0
60대 (60세~65세)	(67)	9.0	13.4	22.4	46.3	31.3	77.6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4.8	30.2	34.9	43.5	21.6	65.1	100.0
영업/판매/서비스	(102)	8.8	19.6	28.4	51.0	20.6	71.6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2.6	25.6	28.2	53.8	17.9	71.8	100.0
자영업	(130)	11.5	20.0	31.5	43.8	24.6	68.5	100.0
학생	(158)	2.5	19.0	21.5	48.7	29.7	78.5	100.0
주부	(178)	5.6	19.1	24.7	51.1	24.2	75.3	100.0
무직/퇴직/기타	(72)	5.6	20.8	26.4	45.8	27.8	73.6	100.0
모름/무응답	(6)	16.7	16.7	33.3	33.3	33.3	66.7	100.0
월가소득								
99만원이하	(44)	13.6	27.3	40.9	25.0	34.1	59.1	100.0
100 - 199만원	(112)	7.1	23.2	30.3	51.8	25.0	76.8	100.0
200 - 299만원	(193)	5.7	21.2	26.9	53.9	19.2	73.1	100.0
300 - 399만원	(203)	5.4	23.2	28.6	45.3	26.1	71.4	100.0
400 - 499만원	(144)	6.3	29.2	35.4	42.4	22.2	64.6	100.0
500만원이상	(207)	5.3	24.2	29.5	48.3	22.2	70.5	100.0
모름/무응답	(97)	3.1	21.6	24.7	45.4	29.9	75.3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2.7	19.8	22.5	49.9	27.6	77.5	100.0
보통	(377)	8.5	26.3	34.7	45.9	19.4	65.3	100.0
좋지 않은 편	(72)	16.7	31.9	48.6	30.6	20.8	51.4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2.9	20.2	23.2	49.8	27.0	76.8	100.0
보통	(297)	9.1	28.3	37.4	44.4	18.2	62.6	100.0
좋지 않은 편	(53)	24.5	28.3	52.8	28.3	18.9	47.2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고위험군	(37)	56.8	29.7	86.5	5.4	8.1	13.5	100.0
고위험군	(329)	9.1	49.5	58.6	40.7	9.7	50.5	100.0
위험군	(545)	1.5	15.8	17.2	58.2	24.6	82.8	100.0
저위험군	(89)	0.0	1.1	1.1	19.1	79.8	98.9	100.0

4) 관계적 요인 -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문1)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5)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표9〉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58)	5.8
대체로 그런 편이다	(158)	15.8
별로 그렇지 않다	(317)	31.7
전혀 그렇지 않다	(465)	46.5
모름/무응답	(2)	0.2
합계	(1000)	100.0

전체

-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 5.8%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5.8%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21.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78.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60대(37.3%) △생산/기술/노무직(33.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20대(88.0%) △학생(8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0〉 고민 상담자 부재 문제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모름	모름	계	
전체	(1000)	5.8	15.8	21.6	31.7	46.5	78.2	0.2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2.4	10.7	13.1	26.2	60.7	86.9	0.0	100.0
20대	(217)	2.3	9.7	12.0	22.6	65.4	88.0	0.0	100.0
30대	(242)	3.7	16.5	20.2	32.6	47.1	79.8	0.0	100.0
40대	(218)	6.0	18.3	24.3	39.9	35.8	75.7	0.0	100.0
50대	(172)	10.5	19.8	30.2	32.6	36.0	68.6	1.2	100.0
60대 (60세~65세)	(67)	16.4	20.9	37.3	35.8	26.9	62.7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75)	12.0	20.0	32.0	33.3	34.7	68.0	0.0	100.0
고졸	(281)	7.8	16.4	24.2	29.2	46.3	75.4	0.4	100.0
대졸 이상	(640)	4.1	15.0	19.1	32.5	48.3	80.8	0.2	100.0
모름/무응답	(4)	25.0	25.0	50.0	50.0	0.0	50.0	0.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3.8	16.8	20.6	28.6	50.8	79.4	0.0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8.8	16.7	25.5	33.3	41.2	74.5	0.0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5.1	28.2	33.3	43.6	23.1	66.7	0.0	100.0
자영업	(130)	13.1	16.9	30.0	31.5	38.5	70.0	0.0	100.0
학생	(158)	1.9	8.9	10.8	24.7	64.6	89.2	0.0	100.0
주부	(178)	7.3	16.3	23.6	34.8	41.0	75.8	0.6	100.0
무직/퇴직/기타	(72)	2.8	15.3	18.1	43.1	37.5	80.6	1.4	100.0
모름/무응답	(6)	0.0	16.7	16.7	50.0	33.3	83.3	0.0	100.0
경제수준									
상	(55)	0.0	7.3	7.3	34.5	56.4	90.9	1.8	100.0
중	(743)	4.2	14.8	19.0	31.4	49.5	80.9	0.1	100.0
하	(196)	13.8	21.4	35.2	32.1	32.7	64.8	0.0	100.0
모름/무응답	(6)	0.0	33.3	33.3	33.3	33.3	66.7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3.6	12.9	16.5	28.7	54.6	83.3	0.2	100.0
보통	(377)	8.2	19.6	27.9	35.0	36.9	71.9	0.3	100.0
조금 안 편	(72)	9.7	18.1	27.8	37.5	34.7	72.2	0.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3.4	12.4	15.8	30.4	53.5	83.9	0.3	100.0
보통	(297)	9.4	21.5	31.0	34.7	34.3	69.0	0.0	100.0
조금 안 편	(53)	13.2	24.5	37.7	30.2	32.1	62.3	0.0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고위험군	(37)	48.6	32.4	81.1	16.2	2.7	18.9	0.0	100.0
고위험군	(329)	8.5	30.7	39.2	40.4	20.4	60.8	0.0	100.0
위험군	(545)	2.2	8.3	10.5	31.7	57.6	89.4	0.2	100.0
저위험군	(89)	0.0	0.0	0.0	5.6	93.3	98.9	1.1	100.0

5) 스트레스 관리 요인 -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문1)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4)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표11〉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25)	2.5
대체로 그런 편이다	(150)	15.0
별로 그렇지 않다	(364)	36.4
전혀 그렇지 않다	(458)	45.8
모름/무응답	(3)	0.3
합계	(1000)	100.0

전체

-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에 대해, 2.5%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5.0%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17.5%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82.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여자(21.2%) △영업/판매/서비스직(20.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86.0%) △학생(83.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2〉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조절 문제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계	
전체	(1000)	2.5	15.0	17.5	36.4	45.8	82.2	0.3	100.0
성별									
남자	(499)	1.4	12.4	13.8	34.1	51.9	86.0	0.2	100.0
여자	(501)	3.6	17.6	21.2	38.7	39.7	78.4	0.4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2.4	16.7	19.0	36.9	44.0	81.0	0.0	100.0
20대	(217)	3.2	17.1	20.3	36.9	42.9	79.7	0.0	100.0
30대	(242)	2.1	17.4	19.4	40.5	40.1	80.6	0.0	100.0
40대	(218)	1.8	14.2	16.1	31.7	52.3	83.9	0.0	100.0
50대	(172)	3.5	9.3	12.8	37.8	47.7	85.5	1.7	100.0
60대 (60세~65세)	(67)	1.5	14.9	16.4	31.3	52.2	83.6	0.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3.2	14.9	18.1	32.7	49.2	81.9	0.0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2.9	17.6	20.6	31.4	47.1	78.4	1.0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2.6	12.8	15.4	25.6	56.4	82.1	2.6	100.0
자영업	(130)	2.3	14.6	16.9	38.5	43.8	82.3	0.8	100.0
학생	(158)	1.3	15.2	16.5	38.0	45.6	83.5	0.0	100.0
주부	(178)	2.2	14.6	16.9	44.9	38.2	83.1	0.0	100.0
무직/퇴직/기타	(72)	2.8	13.9	16.7	36.1	47.2	83.3	0.0	100.0
모름/무응답	(6)	0.0	16.7	16.7	50.0	33.3	83.3	0.0	100.0
경제수준									
상	(55)	0.0	9.1	9.1	32.7	58.2	90.9	0.0	100.0
중	(743)	2.2	14.9	17.1	37.4	45.2	82.6	0.3	100.0
하	(196)	4.6	16.8	21.4	33.2	44.9	78.1	0.5	100.0
모름/무응답	(6)	0.0	16.7	16.7	50.0	33.3	83.3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1.3	12.9	14.2	36.3	49.2	85.5	0.4	100.0
보통	(377)	2.9	17.5	20.4	37.4	41.9	79.3	0.3	100.0
좋지 않은 편	(72)	9.7	18.1	27.8	31.9	40.3	72.2	0.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1.4	11.4	12.8	36.3	50.5	86.9	0.3	100.0
보통	(297)	4.7	20.5	25.3	37.4	37.4	74.7	0.0	100.0
좋지 않은 편	(53)	3.8	24.5	28.3	34.0	35.8	69.8	1.9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고위험군	(37)	21.6	45.9	67.6	21.6	10.8	32.4	0.0	100.0
고위험군	(329)	4.3	27.1	31.3	42.9	24.9	67.8	0.9	100.0
위험군	(545)	0.6	7.9	8.4	37.2	54.3	91.6	0.0	100.0
저위험군	(89)	0.0	1.1	1.1	13.5	85.4	98.9	0.0	100.0

6) 스트레스 관리 요인 -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문1)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6)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

〈표13〉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283)	28.3
대체로 그런 편이다	(438)	43.8
별로 그렇지 않다	(223)	22.3
전혀 그렇지 않다	(55)	5.5
모름/무응답	(1)	0.1
합계	(1000)	100.0

전체

-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라는 말에 대해, 28.3%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3.8%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72.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7.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쉽게 풀어내는 편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음.

〈표14〉 스트레스 해소 용이성 문제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모름	모름	계	
전체	(1000)	28.3	43.8	72.1	22.3	5.5	27.8	0.1	100.0
성별									
남자	(499)	30.3	45.3	75.6	19.2	5.2	24.4	0.0	100.0
여자	(501)	26.3	42.3	68.7	25.3	5.8	31.1	0.2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31.0	46.4	77.4	19.0	3.6	22.6	0.0	100.0
20대	(217)	30.9	36.9	67.7	26.3	6.0	32.3	0.0	100.0
30대	(242)	26.0	43.4	69.4	28.1	2.5	30.6	0.0	100.0
40대	(218)	25.2	48.2	73.4	20.2	6.4	26.6	0.0	100.0
50대	(172)	29.7	44.8	74.4	16.3	8.7	25.0	0.6	100.0
60대 (60세~65세)	(67)	31.3	47.8	79.1	14.9	6.0	20.9	0.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30.8	44.4	75.2	19.7	5.1	24.8	0.0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26.5	37.3	63.7	28.4	7.8	36.3	0.0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20.5	59.0	79.5	17.9	2.6	20.5	0.0	100.0
자영업	(130)	30.8	43.8	74.6	16.2	9.2	25.4	0.0	100.0
학생	(158)	32.9	43.7	76.6	20.3	3.2	23.4	0.0	100.0
주부	(178)	25.8	41.0	66.9	27.5	5.1	32.6	0.6	100.0
무직/퇴직/기타	(72)	18.1	48.6	66.7	29.2	4.2	33.3	0.0	100.0
모름/무응답	(6)	0.0	50.0	50.0	33.3	16.7	50.0	0.0	100.0
경제수준									
상	(55)	40.0	43.6	83.6	12.7	3.6	16.4	0.0	100.0
중	(743)	27.5	43.9	71.3	24.4	4.2	28.5	0.1	100.0
하	(196)	28.6	42.3	70.9	17.9	11.2	29.1	0.0	100.0
모름/무응답	(6)	16.7	83.3	100.0	0.0	0.0	0.0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33.4	44.5	77.9	18.7	3.4	22.1	0.0	100.0
보통	(377)	21.2	46.7	67.9	26.3	5.6	31.8	0.3	100.0
좋지 않은 편	(72)	26.4	23.6	50.0	29.2	20.8	50.0	0.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33.7	45.7	79.4	17.2	3.4	20.6	0.0	100.0
보통	(297)	18.9	43.8	62.6	29.6	7.4	37.0	0.3	100.0
좋지 않은 편	(53)	17.0	18.9	35.8	45.3	18.9	64.2	0.0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고위험군	(37)	10.8	18.9	29.7	35.1	35.1	70.3	0.0	100.0
고위험군	(329)	12.8	42.6	55.3	36.5	8.2	44.7	0.0	100.0
위험군	(545)	31.0	50.1	81.1	16.1	2.6	18.7	0.2	100.0
저위험군	(89)	76.4	20.2	96.6	2.2	1.1	3.4	0.0	100.0

기 스트레스 해소 요인 -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문1)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2)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표15〉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50)	5.0
대체로 그런 편이다	(81)	8.1
별로 그렇지 않다	(241)	24.1
전혀 그렇지 않다	(625)	62.5
모름/무응답	(3)	0.3
합계	(1000)	100.0

전체

-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말에 대해, 5.0%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8.1%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13.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86.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18.6%) △영업/판매/서비스직(21.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으며, △여자(92.2%) △주부(93.8%) 및 학생(92.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6〉 우울한 기분 때문에 동석자 없는 음주 선호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③ (①+②)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③+④)	모름	계
전체	(1000)	5.0	8.1	13.1	24.1	62.5	86.6	0.3	100.0
성별									
남자	(499)	7.2	11.4	18.6	26.3	54.7	81.0	0.4	100.0
여자	(501)	2.8	4.8	7.6	22.0	70.3	92.2	0.2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0.0	2.4	2.4	15.5	78.6	94.0	3.6	100.0
20대	(217)	5.1	7.4	12.4	21.2	66.4	87.6	0.0	100.0
30대	(242)	4.5	8.7	13.2	27.7	59.1	86.8	0.0	100.0
40대	(218)	6.9	7.8	14.7	30.7	54.6	85.3	0.0	100.0
50대	(172)	5.2	10.5	15.7	19.8	64.5	84.3	0.0	100.0
60대 (60세~65세)	(67)	6.0	10.4	16.4	20.9	62.7	83.6	0.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3.8	10.2	14.0	26.0	60.0	86.0	0.0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9.8	11.8	21.6	26.5	52.0	78.4	0.0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5.1	10.3	15.4	35.9	48.7	84.6	0.0	100.0
자영업	(130)	7.7	10.8	18.5	26.2	55.4	81.5	0.0	100.0
학생	(158)	3.2	2.5	5.7	20.3	72.2	92.4	1.9	100.0
주부	(178)	2.8	3.4	6.2	19.1	74.7	93.8	0.0	100.0
무직/퇴직/기타	(72)	8.3	9.7	18.1	22.2	59.7	81.9	0.0	100.0
모름/무응답	(6)	0.0	33.3	33.3	33.3	33.3	66.7	0.0	100.0
경제수준									
상층	(55)	3.6	5.5	9.1	25.5	65.5	90.9	0.0	100.0
중층	(743)	4.2	6.6	10.8	24.5	64.5	89.0	0.3	100.0
하층	(196)	8.7	13.8	22.4	23.0	54.1	77.0	0.5	100.0
모름/무응답	(6)	0.0	33.3	33.3	0.0	66.7	66.7	0.0	100.0
신체건강감상									
좋은 편	(551)	2.7	6.5	9.3	24.3	66.2	90.6	0.2	100.0
보통	(377)	6.4	10.3	16.7	25.2	57.6	82.8	0.5	100.0
조지 않은 편	(72)	15.3	8.3	23.6	16.7	59.7	76.4	0.0	100.0
정신건강감상									
좋은 편	(647)	2.8	5.3	8.0	23.3	68.5	91.8	0.2	100.0
보통	(297)	7.1	13.8	20.9	27.3	51.9	79.1	0.0	100.0
조지 않은 편	(53)	20.8	9.4	30.2	17.0	49.1	66.0	3.8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고위험군	(37)	45.9	29.7	75.7	13.5	10.8	24.3	0.0	100.0
고위험군	(329)	9.4	14.6	24.0	34.3	41.3	75.7	0.3	100.0
위험군	(545)	0.4	3.9	4.2	21.8	73.6	95.4	0.4	100.0
저위험군	(89)	0.0	1.1	1.1	4.5	94.4	98.9	0.0	100.0

8) 스트레스 해소 요인 -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문1)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1-3)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

〈표17〉 대인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73)	7.3
대체로 그런 편이다	(171)	17.1
별로 그렇지 않다	(406)	40.6
전혀 그렇지 않다	(346)	34.6
모름/무응답	(4)	0.4
합계	(1000)	100.0

전체

-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라는 말에 대해, 7.3%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7.1%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24.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75.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보다 더 재미있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60대(29.9%) △중졸 이하(29.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으며, △10대(84.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18〉 대인 관계보다 TV시청, 인터넷 선호

(단위 : %)									
	사례 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 이다	③ ①+②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⑥ ③+④	모름	계
전체	(1000)	7.3	17.1	24.4	40.6	34.6	75.2	0.4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6.0	9.5	15.5	42.9	41.7	84.5	0.0	100.0
20대	(217)	3.7	23.0	26.7	40.1	33.2	73.3	0.0	100.0
30대	(242)	7.4	19.0	26.4	44.2	28.9	73.1	0.4	100.0
40대	(218)	7.8	13.8	21.6	39.9	38.1	78.0	0.5	100.0
50대	(172)	9.9	14.5	24.4	39.0	36.6	75.6	0.0	100.0
60대 (60세~65세)	(67)	11.9	17.9	29.9	32.8	34.3	67.2	3.0	100.0
학력									
중졸 이하	(75)	10.7	18.7	29.3	29.3	38.7	68.0	2.7	100.0
고졸	(281)	9.6	12.1	21.7	39.9	38.1	77.9	0.4	100.0
대졸 이상	(640)	5.9	18.9	24.8	42.3	32.7	75.0	0.2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25.0	25.0	50.0	0.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6.3	22.9	29.2	40.3	30.2	70.5	0.3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9.8	12.7	22.5	36.3	41.2	77.5	0.0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5.1	28.2	33.3	30.8	30.8	61.5	5.1	100.0
자영업	(130)	13.1	15.4	28.5	33.1	37.7	70.8	0.8	100.0
학생	(158)	5.1	13.3	18.4	43.7	38.0	81.6	0.0	100.0
주부	(178)	5.6	11.8	17.4	46.1	36.5	82.6	0.0	100.0
무직/퇴직/기타	(72)	8.3	13.9	22.2	48.6	29.2	77.8	0.0	100.0
모름/무응답	(6)	0.0	50.0	50.0	16.7	33.3	50.0	0.0	100.0
경제수준									
상	(55)	5.5	10.9	16.4	45.5	38.2	83.6	0.0	100.0
중	(743)	5.9	17.5	23.4	40.8	35.4	76.2	0.4	100.0
하	(196)	13.3	17.3	30.6	37.8	31.1	68.9	0.5	100.0
모름/무응답	(6)	0.0	16.7	16.7	66.7	16.7	83.3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4.5	11.8	16.3	43.6	39.7	83.3	0.4	100.0
보통	(377)	9.0	23.3	32.4	38.7	28.4	67.1	0.5	100.0
좋지 않은 편	(72)	19.4	25.0	44.4	27.8	27.8	55.6	0.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4.9	13.9	18.9	41.3	39.6	80.8	0.3	100.0
보통	(297)	10.1	21.2	31.3	41.4	26.6	68.0	0.7	100.0
좋지 않은 편	(53)	20.8	30.2	50.9	28.3	20.8	49.1	0.0	100.0
스트레스취향									
초고위험군	(37)	59.5	21.6	81.1	16.2	2.7	18.9	0.0	100.0
고위험군	(329)	12.2	32.5	44.7	38.9	16.1	55.0	0.3	100.0
위험군	(545)	2.0	10.1	12.1	46.4	41.3	87.7	0.2	100.0
저위험군	(89)	0.0	1.1	1.1	21.3	75.3	96.6	2.2	100.0

3. 우울증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1) 우울증 경험 유무

문2) __님께서 금년들어 2주일 이상 기분이 우울하여 의욕이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표19〉 우울증 경험 유무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	(40)	4.0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편이다	(192)	19.2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294)	29.4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474)	47.4
합계	(1000)	100.0

전체

- ‘금년들어 2주일 이상 기분이 우울하여 의욕이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에 대해, 4.0%가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9.2%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23.2%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76.8%는 없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금년들어 2주일 이상 기분이 우울하여 의욕이 없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에 대해 있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으며, △자영업자(3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높으며, △학생(81.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20〉 우울증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 수 (명)	①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	②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편이다	①+②	③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④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③+④	계	
전체	(1000)	4.0	19.2	23.2	29.4	47.4	76.8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4.8	13.1	17.9	22.6	59.5	82.1	100.0
	20대	(217)	3.7	18.4	22.1	27.2	50.7	77.9	100.0
	30대	(242)	2.1	20.7	22.7	33.9	43.4	77.3	100.0
	40대	(218)	4.6	18.8	23.4	31.7	45.0	76.6	100.0
	50대	(172)	4.1	21.5	25.6	27.9	46.5	74.4	100.0
	60대 (60세~65세)	(67)	9.0	19.4	28.4	25.4	46.3	71.6	100.0
학력	중졸 이하	(75)	8.0	25.3	33.3	18.7	48.0	66.7	100.0
	고졸	(281)	5.7	21.4	27.0	26.3	46.6	73.0	100.0
	대졸 이상	(640)	2.8	17.2	20.0	32.2	47.8	80.0	100.0
	모름 / 무응답	(4)	0.0	75.0	75.0	0.0	25.0	25.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3.2	16.2	19.4	30.8	49.8	80.6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5.9	23.5	29.4	24.5	46.1	70.6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0.0	23.1	23.1	38.5	38.5	76.9	100.0
	자영업	(130)	5.4	24.6	30.0	34.6	35.4	70.0	100.0
	학생	(158)	3.8	14.6	18.4	23.4	58.2	81.6	100.0
	주부	(178)	2.2	21.9	24.2	28.1	47.8	75.8	100.0
	무직/퇴직/기타	(72)	9.7	16.7	26.4	31.9	41.7	73.6	100.0
	모름 / 무응답	(6)	0.0	33.3	33.3	33.3	33.3	66.7	100.0
경제수준	상층	(55)	0.0	10.9	10.9	16.4	72.7	89.1	100.0
	중층	(743)	2.8	18.2	21.0	30.8	48.2	79.0	100.0
	하층	(196)	9.7	25.0	34.7	26.5	38.8	65.3	100.0
	모름 / 무응답	(6)	0.0	33.3	33.3	66.7	0.0	66.7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1.8	14.3	16.2	27.8	56.1	83.8	100.0
	보통	(377)	4.5	23.6	28.1	34.0	37.9	71.9	100.0
	좋지 않은 편	(72)	18.1	33.3	51.4	18.1	30.6	48.6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1.1	13.6	14.7	28.0	57.3	85.3	100.0
	보통	(297)	6.4	29.6	36.0	34.0	30.0	64.0	100.0
	좋지 않은 편	(53)	26.4	26.4	52.8	20.8	26.4	47.2	100.0
스트레스위험군	초고위험군	(37)	29.7	48.6	78.4	18.9	2.7	21.6	100.0
	고위험군	(329)	6.7	34.0	40.7	35.3	24.0	59.3	100.0
	위험군	(545)	1.3	10.8	12.1	29.9	58.0	87.9	100.0
	저위험군	(89)	0.0	3.4	3.4	9.0	87.6	96.6	100.0

2)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경험

문2-1] (그런 경우가 자주 있거나 가끔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나요?

〈표21〉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경험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
아무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	(159)	68.5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	(73)	31.5
합계	(232)	100.0

* 우울증을 경험 했다는 응답자 232명 대상임.

전체

- 우울증 경험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31.5%임.

응답자 특성별

- 우울증 경험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여자(36.4%) △20대(41.7%) △동북부지역 거주자(36.4%) △대재이상(39.8%) △생산/기술/노무직(55.6%)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임(35.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22〉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경험

(단위 : %)				
	사례 수 (명)	아무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	계
전체	(232)	68.5	31.5	100.0
성별				
남자	(103)	74.8	25.2	100.0
여자	(129)	63.6	36.4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15)	80.0	20.0	100.0
20대	(48)	58.3	41.7	100.0
30대	(55)	65.5	34.5	100.0
40대	(51)	64.7	35.3	100.0
50대	(44)	77.3	22.7	100.0
60대 (60세-65세)	(19)	84.2	15.8	100.0
거주지역				
도심/서북지역	(35)	71.4	28.6	100.0
동북부지역	(77)	63.6	36.4	100.0
남부지역	(84)	70.2	29.8	100.0
강남3구	(36)	72.2	27.8	100.0
학력				
중졸이하	(25)	84.0	16.0	100.0
고졸	(76)	76.3	23.7	100.0
대재이상	(128)	60.2	39.8	100.0
모름/무응답	(3)	100.0	0.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61)	73.8	26.2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30)	66.7	33.3	100.0
생산/기술/노무직	(9)	44.4	55.6	100.0
자영업	(39)	71.8	28.2	100.0
학생	(29)	62.1	37.9	100.0
주부	(43)	65.1	34.9	100.0
무직/퇴직/기타	(19)	73.7	26.3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편	(89)	68.5	31.5	100.0
보통	(106)	67.9	32.1	100.0
좋지않은편	(37)	70.3	29.7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편	(95)	68.4	31.6	100.0
보통	(107)	69.2	30.8	100.0
좋지않은편	(28)	64.3	35.7	100.0

3)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대상

문2-2)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다면) 다음 중 누구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나요?

〈표23〉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대상

구분	응답 비율 (%)
친구	49.3
가족이나 친지	24.7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성직자	9.6
일반 병원이나 의원(정신과 전문의 제외)	6.8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	6.8
일반 사회단체의 상담센터	2.7
합계	100.0

*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학교의 상담센터나 선생님'와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는 응답되지 않았음.

전체

- 우울증 경험 시 도움을 받았거나 상담을 했던 대상으로 '친구'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친지'(24.7%),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성직자'(9.6%) 등의 순임.

응답자 특성별

- 우울증 경험 시 '친구'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20대(65.0%) △도심/서북지역 거주자(60.0%) △종교없음(72.0%) △미혼자(67.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가족이나 친지'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강남3구 거주자(40.0%)에서,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성직자'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50대(20.0%) △기독교(22.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24〉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대상

(단위 : %)

	사례수 (명)	친구	가족이나 친지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성직자	일반 병원이나 의원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	일반 사회단체의 상담센터	계
전체	(73)	49.3	24.7	9.6	6.8	6.8	2.7	100.0
성별								
남	(26)	57.7	23.1	7.7	7.7	0.0	3.8	100.0
여	(47)	44.7	25.5	10.6	6.4	10.6	2.1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3)	100.0	0.0	0.0	0.0	0.0	0.0	100.0
20대	(20)	65.0	30.0	0.0	5.0	0.0	0.0	100.0
30대	(19)	57.9	15.8	10.5	0.0	10.5	5.3	100.0
40대	(18)	33.3	33.3	16.7	5.6	11.1	0.0	100.0
50대	(10)	30.0	20.0	20.0	20.0	0.0	10.0	100.0
60대 (60세~65세)	(3)	0.0	33.3	0.0	33.3	33.3	0.0	100.0
거주지역								
도심/서북지역	(10)	60.0	20.0	10.0	0.0	10.0	0.0	100.0
동북부지역	(28)	46.4	21.4	10.7	10.7	7.1	3.6	100.0
남부지역	(25)	52.0	24.0	8.0	8.0	4.0	4.0	100.0
강남3구	(10)	40.0	40.0	10.0	0.0	10.0	0.0	100.0
학력								
중졸이하	(4)	0.0	25.0	25.0	25.0	25.0	0.0	100.0
고졸	(18)	55.6	22.2	16.7	0.0	0.0	5.6	100.0
대졸이상	(51)	51.0	25.5	5.9	7.8	7.8	2.0	100.0
종교								
기독교	(27)	37.0	25.9	22.2	7.4	7.4	0.0	100.0
천주교	(10)	30.0	30.0	0.0	10.0	10.0	20.0	100.0
불교	(11)	45.5	18.2	9.1	9.1	18.2	0.0	100.0
종교없음 (무교)	(25)	72.0	24.0	0.0	4.0	0.0	0.0	100.0
혼인상태								
미혼	(34)	67.6	20.6	5.9	2.9	2.9	0.0	100.0
기혼	(39)	33.3	28.2	12.8	10.3	10.3	5.1	100.0

* 사례수가 작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4)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하지 않은 이유

문2-3]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25〉 우울증 경험 시 도움 요청 하지 않은 이유

구분	응답 비율 (%)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45.3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0
상담을 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16.4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11.9
모름/무응답	4.4
합계	100.0

전체

- 우울증 경험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로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라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고,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22.0%임.

4. 초/중/고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 등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도움 요청 대상

1) 자녀의 집중도 문제

문3)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 ‘아니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3-1)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매우 산만하다.

〈표26〉 자녀의 집중도 문제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97)	37.9
아니다	(157)	61.3
모름	(2)	0.8
합계	(256)	100.0

*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대상임.

전 체

-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중 자녀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매우 산만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임.

2) 자녀와 가족 간의 대화 문제

문3)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 ‘아니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3-2) 집에 오면 자기 방에만 혼자 있고 가족과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

〈표27〉 자녀와 가족 간의 대화 문제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17)	6.6
아니다	(238)	93.0
모름	(1)	0.4
합계	(256)	100.0

*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대상임.

전 체

-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중 자녀가 집에 오면 자기 방에만 혼자 있고 가족과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6%임.

3) 학교에서의 자녀와 친구들 간의 관계 문제

문3)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
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 ‘아니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3-3) 학교에서 전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낸다.

〈표28〉 학교에서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8)	3.1
아니다	(246)	96.1
모름	(2)	0.8
합계	(256)	100.0

*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대상임.

전 체

-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중 자녀가 학교에서 전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3.1%임.

4) 자녀가 학업이나 친구관계로 받는 스트레스 문제

문3)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
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 ‘아니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3-4) 학업이나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많이 받는다.

〈표29〉 자녀가 학업이나 친구관계로 받는 스트레스 문제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48)	18.8
아니다	(202)	78.9
모름	(6)	2.3
합계	(256)	100.0

*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대상임.

전 체

-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중 자녀가 학업이나 친구관계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8.8%임.

5) 자녀의 기분 관련 문제

문3)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
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 ‘아니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3-3)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하는 경향이 자주 반복된다.

〈표30〉 자녀의 기분 관련 문제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50)	19.5
아니다	(203)	79.3
모름	(3)	1.2
합계	(256)	100.0

*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대상임.

전 체

-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중 자녀가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하는 경향이 자주 반복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5%임.

6) 자녀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 관련 문제

문3)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
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 ‘아니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3-6)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인터넷이나 게임에 너무 몰두하는 편이다.

〈표31〉 인터넷 및 게임 관련 문제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62)	24.2
아니다	(193)	75.4
모름	(1)	0.4
합계	(256)	100.0

*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대상임.

전 체

-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중 자녀가 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인터넷이나 게임에 너무 몰두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2%임.

7. 자녀문제 경험 시 도움 요청 경험

문4) (그런 경우가 한 가지라도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나요?

〈표32〉 자녀문제 경험 시 도움 요청 경험 유무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
아무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	(116)	80.6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	(28)	19.4
합계	(144)	100.0

*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256명 중 자녀에게 문3의 문제가 1가지 이상 있다는 응답자 144명 대상임.

전 체

- 자녀문제 경험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19.4%임.

응답자 특성별

- 자녀문제 경험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동북부지역 거주자(28.9%) △고졸(30.2%) △월 가구소득 100-199만원(44.4%) △기독교(28.6%)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임(4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3〉 자녀문제 경험 시 도움 요청 경험

(단위 : %)				
	사례 수 (명)	아무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	계
전 체	(144)	80.6	19.4	100.0
연 령				
20 대	(1)	0.0	100.0	100.0
30 대	(39)	74.4	25.6	100.0
40 대	(85)	81.2	18.8	100.0
50 대	(17)	94.1	5.9	100.0
60대 (60세-65세)	(2)	100.0	0.0	100.0
거 주 지 역				
도심/ 서북지역	(23)	91.3	8.7	100.0
동 북 부 지 역	(45)	71.1	28.9	100.0
남 부 지 역	(47)	80.9	19.1	100.0
강 남 3 구	(29)	86.2	13.8	100.0
학 령				
중 졸 이 하	(6)	100.0	0.0	100.0
고 졸	(43)	69.8	30.2	100.0
대 재 이 상	(93)	83.9	16.1	100.0
모 름 / 무응답	(2)	100.0	0.0	100.0
월 가 구 소 득				
99 만 원 이 하	(4)	75.0	25.0	100.0
100 - 199 만 원	(18)	55.6	44.4	100.0
200 - 299 만 원	(24)	83.3	16.7	100.0
300 - 399 만 원	(24)	79.2	20.8	100.0
400 - 499 만 원	(30)	86.7	13.3	100.0
500 만 원 이 상	(39)	87.2	12.8	100.0
모 름 / 무응답	(5)	80.0	20.0	100.0
종 교				
기 독 교	(42)	71.4	28.6	100.0
천 주 교	(25)	84.0	16.0	100.0
불 교	(23)	91.3	8.7	100.0
기 타 종 교	(1)	100.0	0.0	100.0
종교없음 (무교)	(53)	81.1	18.9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84)	84.5	15.5	100.0
보통	(52)	75.0	25.0	100.0
좋지 않은 편	(8)	75.0	25.0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88)	84.1	15.9	100.0
보통	(51)	76.5	23.5	100.0
좋지 않은 편	(5)	60.0	40.0	100.0

8) 자녀문제 경험 시 도움 요청 대상

문4-1]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다면) 다음 중 누구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나요?

〈표34〉 자녀문제 경험 시 도움 요청 대상

구분	응답 비율 (%)
학교의 상담센터나 선생님	32.1
가족이나 친지	17.9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	17.9
친구	7.1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성직자	7.1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	7.1
일반 병원이나 의원(정신과 전문의 제외)	7.1
일반 사회단체의 상담센터	3.6
합계	100.0

* 자녀문제 경험 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28명 대상임.

전 체

- 자녀문제 경험 시 도움을 받았거나 상담을 했던 대상으로 '학교의 상담센터나 선생님'라는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지'(17.9%),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17.9%) 등의 순임.

9) 자녀문제 경험 시 도움 요청 하지 않은 이유

문4-2]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35〉 자녀문제 경험 시 도움 요청 하지 않은 이유

구분	응답 비율 (%)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56.0
상담을 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10.3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9.5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6.9
모름/무응답	17.2
합계	100.0

* 자녀문제 경험 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하지 않은 116명 대상임.

전 체

- 자녀문제 경험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로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라는 응답이 56.0%로 가장 많았음.

5. 음주문제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1)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경험

문5)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__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5-1)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표36〉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경험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251)	25.1
아니다	(645)	64.5
모름	(3)	0.3
해당없음	(101)	10.1
합계	(1000)	100.0

전 체

-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말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5.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4.5%가 ‘아니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37.5%) △20대(33.2%) △영업/판매/서비스직(3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7〉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모름	해당없음	계
전체	(1000)	25.1	64.5	0.3	10.1	100.0
성별						
남자	(499)	37.5	55.3	0.4	6.8	100.0
여자	(501)	12.8	73.7	0.2	13.4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3.6	71.4	0.0	25.0	100.0
20대	(217)	33.2	60.4	0.5	6.0	100.0
30대	(242)	25.2	65.7	0.4	8.7	100.0
40대	(218)	29.4	60.1	0.0	10.6	100.0
50대	(172)	21.5	70.9	0.6	7.0	100.0
60대 (60세~65세)	(67)	20.9	62.7	0.0	16.4	100.0
학력						
중졸 이하	(75)	13.3	62.7	0.0	24.0	100.0
고졸	(281)	17.8	68.3	0.7	13.2	100.0
대재 이상	(640)	29.5	63.1	0.2	7.2	100.0
모름 / 무응답	(4)	50.0	50.0	0.0	0.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32.1	61.0	0.0	7.0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39.2	55.9	0.0	4.9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35.9	51.3	0.0	12.8	100.0
자영업	(130)	30.0	61.5	0.8	7.7	100.0
학생	(158)	11.4	72.8	0.6	15.2	100.0
주부	(178)	8.4	74.7	0.6	16.3	100.0
무직/퇴직/기타	(72)	29.2	63.9	0.0	6.9	100.0
모름 / 무응답	(6)	50.0	33.3	0.0	16.7	100.0
경제수준						
상	(55)	21.8	65.5	0.0	12.7	100.0
중	(743)	25.2	65.1	0.3	9.4	100.0
하	(196)	26.0	62.2	0.5	11.2	100.0
모름 / 무응답	(6)	16.7	50.0	0.0	33.3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23.8	66.1	0.2	10.0	100.0
보통	(377)	26.5	64.5	0.3	8.8	100.0
좋지 않은 편	(72)	27.8	52.8	1.4	18.1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21.9	67.9	0.3	9.9	100.0
보통	(297)	30.3	58.9	0.3	10.4	100.0
좋지 않은 편	(53)	34.0	56.6	0.0	9.4	100.0

2)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험

문5)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__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5-2)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표38〉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험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79)	7.9
아니다	(820)	82.0
모름	(3)	0.3
해당없음	(98)	9.8
합계	(1000)	100.0

전 체

-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는 말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82.0%가 ‘아니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남자(12.2%) △40대(14.2%) △자영업자(15.4%) △월 가구소득 99만원이하(13.6%)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임(12.5%)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임(15.1%)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9〉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모름	해당없음	계
전체	(1000)	7.9	82.0	0.3	9.8	100.0
성별						
남자	(499)	12.2	80.4	0.4	7.0	100.0
여성	(501)	3.6	83.6	0.2	12.6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1.2	73.8	0.0	25.0	100.0
20대	(217)	7.8	86.2	0.0	6.0	100.0
30대	(242)	3.3	88.0	0.4	8.3	100.0
40대	(218)	14.2	75.7	0.5	9.6	100.0
50대	(172)	9.9	82.6	0.6	7.0	100.0
60대 (60세~65세)	(67)	7.5	76.1	0.0	16.4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9.5	83.2	0.0	7.3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11.8	83.3	0.0	4.9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7.7	76.9	2.6	12.8	100.0
자영업	(130)	15.4	76.9	0.8	6.9	100.0
학생	(158)	2.5	82.3	0.0	15.2	100.0
주부	(178)	2.8	81.5	0.6	15.2	100.0
무직/퇴직/기타	(72)	5.6	87.5	0.0	6.9	100.0
모름 / 무응답	(6)	16.7	83.3	0.0	0.0	100.0
월 가구 소득						
99 만 원 이 하	(44)	13.6	70.5	0.0	15.9	100.0
100 - 199 만 원	(112)	8.9	79.5	0.0	11.6	100.0
200 - 299 만 원	(193)	6.7	85.0	0.5	7.8	100.0
300 - 399 만 원	(203)	8.4	83.3	1.0	7.4	100.0
400 - 499 만 원	(144)	9.7	81.9	0.0	8.3	100.0
500 만 원 이 상	(207)	7.7	84.1	0.0	8.2	100.0
모름 / 무응답	(97)	3.1	77.3	0.0	19.6	100.0
혼 인 상 태						
미혼	(407)	5.9	83.5	0.0	10.6	100.0
기혼	(581)	9.5	80.9	0.5	9.1	100.0
기타	(12)	0.0	83.3	0.0	16.7	100.0
신체적 건강상태						
좋은 편	(551)	7.6	82.0	0.4	10.0	100.0
보통	(377)	7.4	84.4	0.3	8.0	100.0
좋지 않은 편	(72)	12.5	69.4	0.0	18.1	100.0
정신적 건강상태						
좋은 편	(647)	7.0	83.0	0.3	9.7	100.0
보통	(297)	8.4	81.5	0.3	9.8	100.0
좋지 않은 편	(53)	15.1	75.5	0.0	9.4	100.0

3)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험

문5)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__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5-3)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

〈표40〉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험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315)	31.5
아니다	(585)	58.5
모름	(2)	0.2
해당없음	(98)	9.8
합계	(1000)	100.0

전 체

-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는 말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1.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8.5%가 ‘아니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42.5%) △20대(40.6%) △사무/관리/전문직(43.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41〉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모름	해당없음	계
전체	(1000)	31.5	58.5	0.2	9.8	100.0
성별						
남자	(499)	42.5	50.3	0.2	7.0	100.0
여자	(501)	20.6	66.7	0.2	12.6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8.3	66.7	0.0	25.0	100.0
20대	(217)	40.6	53.5	0.0	6.0	100.0
30대	(242)	32.2	59.1	0.4	8.3	100.0
40대	(218)	37.2	53.2	0.0	9.6	100.0
50대	(172)	25.0	67.4	0.6	7.0	100.0
60대 (60세-65세)	(67)	26.9	56.7	0.0	16.4	100.0
학력						
중졸 이하	(75)	16.0	60.0	0.0	24.0	100.0
고졸	(281)	22.8	64.1	0.7	12.5	100.0
대재이상	(640)	37.0	55.9	0.0	7.0	100.0
모름 / 무응답	(4)	50.0	50.0	0.0	0.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43.8	48.9	0.0	7.3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38.2	56.9	0.0	4.9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33.3	53.8	0.0	12.8	100.0
자영업	(130)	36.9	55.4	0.8	6.9	100.0
학생	(158)	19.6	65.2	0.0	15.2	100.0
주부	(178)	9.0	75.3	0.6	15.2	100.0
무직/퇴직/기타	(72)	38.9	54.2	0.0	6.9	100.0
모름 / 무응답	(6)	33.3	66.7	0.0	0.0	100.0
경제수준						
상	(55)	21.8	65.5	0.0	12.7	100.0
중	(743)	31.5	59.1	0.3	9.2	100.0
하	(196)	34.2	54.6	0.0	11.2	100.0
모름 / 무응답	(6)	33.3	50.0	0.0	16.7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30.1	59.7	0.2	10.0	100.0
보통	(377)	33.2	58.6	0.3	8.0	100.0
좋지 않은 편	(72)	33.3	48.6	0.0	18.1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27.7	62.3	0.3	9.7	100.0
보통	(297)	37.4	52.9	0.0	9.8	100.0
좋지 않은 편	(53)	45.3	45.3	0.0	9.4	100.0

4)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경험

문5)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__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5-4)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표42〉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경험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23)	2.3
아니다	(877)	87.7
모름	(2)	0.2
해당없음	(98)	9.8
합계	(1000)	100.0

전 체

-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87.7%가 ‘아니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비율은 △남자(4.0%) △60대(6.0%) △자영업자(3.8%) △경제수준 하(5.6%)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임(4.2%)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임(3.8%)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43〉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모름	해당없음	계
전체	(1000)	2.3	87.7	0.2	9.8	100.0
성별						
남자	(499)	4.0	88.8	0.2	7.0	100.0
여성	(501)	0.6	86.6	0.2	12.6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1.2	73.8	0.0	25.0	100.0
20대	(217)	3.7	90.3	0.0	6.0	100.0
30대	(242)	1.2	90.1	0.4	8.3	100.0
40대	(218)	1.8	88.5	0.0	9.6	100.0
50대	(172)	1.7	90.7	0.6	7.0	100.0
60대 (60세-65세)	(67)	6.0	77.6	0.0	16.4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2.5	90.2	0.0	7.3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2.9	92.2	0.0	4.9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2.6	84.6	0.0	12.8	100.0
자영업	(130)	3.8	88.5	0.8	6.9	100.0
학생	(158)	1.3	83.5	0.0	15.2	100.0
주부	(178)	0.6	83.7	0.6	15.2	100.0
무직/퇴직/기타	(72)	2.8	90.3	0.0	6.9	100.0
모름 / 무응답	(6)	16.7	83.3	0.0	0.0	100.0
경제수준						
상층	(55)	1.8	85.5	0.0	12.7	100.0
중층	(743)	1.3	89.2	0.3	9.2	100.0
하층	(196)	5.6	83.2	0.0	11.2	100.0
모름 / 무응답	(6)	16.7	66.7	0.0	16.7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2.9	86.9	0.2	10.0	100.0
보통	(377)	1.1	90.7	0.3	8.0	100.0
좋지 않은 편	(72)	4.2	77.8	0.0	18.1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2.5	87.5	0.3	9.7	100.0
보통	(297)	1.3	88.9	0.0	9.8	100.0
좋지 않은 편	(53)	3.8	86.8	0.0	9.4	100.0

5)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가족 경험자

문6)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__님 자신은 아니지만, __님 맥의 가족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6-1) 가족 중에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표44〉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가족 경험자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300)	30.0
아니다	(643)	64.3
모름	(3)	0.3
해당없음	(54)	5.4
합계	(1000)	100.0

전 체

- ‘가족 중에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0.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4.3%가 ‘아니다’고 응답함.

6)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가족 경험자

문6)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__님 자신은 아니지만, __님 맥의 가족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6-2) 가족 중에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되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표45〉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된 가족 경험자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103)	10.3
아니다	(842)	84.2
모름	(2)	0.2
해당없음	(53)	5.3
합계	(1000)	100.0

전 체

- ‘가족 중에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되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0.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84.2%가 ‘아니다’고 응답함.

7)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가족 경험자

문6)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__님 자신은 아니지만, __님 맥의 가족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6-3) 가족 중에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표46〉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가족 경험자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247)	24.7
아니다	(677)	67.7
모름	(24)	2.4
해당없음	(52)	5.2
합계	(1000)	100.0

전 체

- ‘가족 중에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한 경우가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4.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7.7%가 ‘아니다’고 응답함.

8)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가족 경험자

문6)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__님 자신은 아니지만, __님 맥의 가족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6-4) 가족 중에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표47〉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신 가족 경험자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그렇다	(27)	2.7
아니다	(914)	91.4
모름	(4)	0.4
해당없음	(55)	5.5
합계	(1000)	100.0

전 체

- ‘가족 중에 술을 깨기 위해 아침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91.4%가 ‘아니다’고 응답함.

9) 음주 관련 도움 요청 경험

문7) __님은 음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표48〉 음주 관련 도움 요청 경험 유무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
아무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	(975)	97.5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	(25)	2.5
합계	(1000)	100.0

전 체

- 음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2.5%임.

응답자 특성별

- 음주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고, △남자(3.2%) △20대(5.1%) △동북부지역 거주자(4.0%) △학생(4.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49〉 음주 관련 도움 요청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 수 (명)	아무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	계
전체	(1000)	97.5	2.5	100.0
성별				
남자	(499)	96.8	3.2	100.0
여성	(501)	98.2	1.8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96.4	3.6	100.0
20대	(217)	94.9	5.1	100.0
30대	(242)	98.8	1.2	100.0
40대	(218)	97.2	2.8	100.0
50대	(172)	98.8	1.2	100.0
60대 (60세-65세)	(67)	100.0	0.0	100.0
거주지역				
도심/서북지역	(163)	98.8	1.2	100.0
동북부지역	(322)	96.0	4.0	100.0
남부지역	(348)	98.0	2.0	100.0
강남3구	(167)	98.2	1.8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96.8	3.2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99.0	1.0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97.4	2.6	100.0
자영업	(130)	97.7	2.3	100.0
학생	(158)	95.6	4.4	100.0
주부	(178)	99.4	0.6	100.0
무직/퇴직/기타	(72)	97.2	2.8	100.0
모름/무응답	(6)	100.0	0.0	100.0
월가소득				
99만원 이하	(44)	97.7	2.3	100.0
100 - 199만원	(112)	96.4	3.6	100.0
200 - 299만원	(193)	97.9	2.1	100.0
300 - 399만원	(203)	99.0	1.0	100.0
400 - 499만원	(144)	97.9	2.1	100.0
500만원 이상	(207)	97.1	2.9	100.0
모름/무응답	(97)	94.8	5.2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편	(551)	98.0	2.0	100.0
보통	(377)	97.1	2.9	100.0
좋지 않은편	(72)	95.8	4.2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편	(647)	98.1	1.9	100.0
보통	(297)	96.3	3.7	100.0
좋지 않은편	(53)	96.2	3.8	100.0

10) 음주 관련 도움 요청 대상

문7-1]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다면) 다음 중 누구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나요?

〈표50〉 음주 관련 도움 요청 대상

구분	응답 비율 (%)
친구	36.0
가족이나 친지	24.0
일반 병원이나 의원(정신과 전문의 제외)	16.0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	12.0
학교의 상담센터나 선생님	4.0
교회, 성당, 절 등 종교단체의 성직자	4.0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	4.0
합계	100.0

* 음주 관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한 25명 대상임.

* '일반 사회단체의 상담센터'는 응답되지 않았음.

전 체

- 음주 관련 도움을 받았거나 상담을 했던 대상으로 '친구'라는 응답이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지'(24.0%), '일반 병원이나 의원'(16.0%) 등의 순임.

6. 자살 시도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1) 자살 생각 경험

문8) ____님은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표51〉 자살 생각 경험 유무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있었다	(175)	17.5
없었다	(825)	82.5
합계	(1000)	100.0

전 체

-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5%임.

응답자 특성별

-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40대(23.9%) 및 60대(23.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52〉 자살 생각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 수 (명)	있었다	없었다	계
■ 전 체 ■	(1000)	17.5	82.5	100.0
성 별				
남 자	(499)	14.8	85.2	100.0
여 자	(501)	20.2	79.8	100.0
연 령				
10대 (15세-19세)	(84)	8.3	91.7	100.0
20 대	(217)	13.8	86.2	100.0
30 대	(242)	16.9	83.1	100.0
40 대	(218)	23.9	76.1	100.0
50 대	(172)	16.9	83.1	100.0
60대 (60세-65세)	(67)	23.9	76.1	100.0
학 령				
중 졸 이 하	(75)	25.3	74.7	100.0
고 졸	(281)	17.1	82.9	100.0
대 재 이 상	(640)	16.6	83.4	100.0
모 름 / 무응답	(4)	50.0	50.0	100.0
경 제 수 준				
상	(55)	10.9	89.1	100.0
중	(743)	14.9	85.1	100.0
하	(196)	29.6	70.4	100.0
모 름 / 무응답	(6)	0.0	10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 은 편	(551)	12.5	87.5	100.0
보 통	(377)	20.2	79.8	100.0
좋 지 않 은 편	(72)	41.7	58.3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 은 편	(647)	10.7	89.3	100.0
보 통	(297)	27.3	72.7	100.0
좋 지 않 은 편	(53)	47.2	52.8	100.0

2) 자살 시도 경험

문8-1)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실제로 그런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표53〉 자살 시도 경험 유무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
있었다	(16)	9.1
없었다	(159)	90.9
합계	(175)	100.0

*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응답자 175명 대상임.

전 체

-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9.1%임.

응답자 특성별

-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10대(28.6%) 및 60대(18.8%) △강남3구 거주자(17.9%) △생산/기술/노무직(20.0%) △월가구소득 100-199만원(15.6%) △정신적 건강상태 좋지 않은 편임(12.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54〉 자살 시도 경험 유무

(단위 : %)

	사례수 (명)	있었다	없었다	계
■ 전 체 ■	(175)	9.1	90.9	100.0
성 별				
남 자	(74)	12.2	87.8	100.0
여 자	(101)	6.9	93.1	100.0
연 령				
10대 (15세-19세)	(7)	28.6	71.4	100.0
20 대	(30)	0.0	100.0	100.0
30 대	(41)	2.4	97.6	100.0
40 대	(52)	11.5	88.5	100.0
50 대	(29)	13.8	86.2	100.0
60대 (60세-65세)	(16)	18.8	81.3	100.0
거 주 지 역				
도심/ 서북지역	(25)	12.0	88.0	100.0
동 북 부 지 역	(65)	7.7	92.3	100.0
남 부 지 역	(57)	5.3	94.7	100.0
강 남 3 구	(28)	17.9	82.1	100.0
직 업				
사무/관리/전문	(46)	4.3	95.7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23)	8.7	91.3	100.0
생산/기술/노무직	(10)	20.0	80.0	100.0
자 영 업	(31)	16.1	83.9	100.0
학 생	(14)	14.3	85.7	100.0
주 부	(34)	5.9	94.1	100.0
무직/퇴직/기타	(16)	6.3	93.8	100.0
모름 / 무응답	(1)	0.0	100.0	100.0
월 가 구 소 득				
99 만 원 이 하	(13)	7.7	92.3	100.0
100 - 199 만 원	(32)	15.6	84.4	100.0
200 - 299 만 원	(33)	9.1	90.9	100.0
300 - 399 만 원	(31)	6.5	93.5	100.0
400 - 499 만 원	(20)	10.0	90.0	100.0
500 만 원 이 상	(33)	9.1	90.9	100.0
모름 / 무응답	(13)	0.0	10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69)	4.3	95.7	100.0
보 통	(76)	11.8	88.2	100.0
좋지 않은 편	(30)	13.3	86.7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9)	8.7	91.3	100.0
보 통	(81)	8.6	91.4	100.0
좋지 않은 편	(25)	12.0	88.0	100.0

3) 자살 시도 시 도움 요청 경험

문8-2)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표55〉 자살 시도 시 도움 요청 경험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아무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았다	(11)	68.8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	(5)	31.2
합계	(16)	100.0

*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는 응답자 16명 대상임.
* 본 문항은 응답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함.

전 체

- 지난 1년간 실제로 자살 시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31.2%임.

4) 자살 시도 시 도움 요청 대상

문8-3]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다면) 다음 중 누구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셨나요?

〈표56〉 자살 시도 시 도움 요청 대상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가족이나 친지	(3)	60.0
친구	(1)	20.0
일반병원이나 의원	(1)	20.0
합계	(5)	100.0

* 자살 시도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 5명 대상임.
* 본 문항은 응답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함.

전 체

- 자살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자 중 도움을 요청한 대상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6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20.0%), '일반병원이나 의원'(20.0%)의 순임.

7. 스트레스, 음주, 우울증 등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1) 스트레스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문9]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9-1) 스트레스도 심각한 질병이다.

〈표57〉 스트레스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510)	51.0
대체로 그런 편이다	(371)	37.1
별로 그렇지 않다	(81)	8.1
전혀 그렇지 않다	(27)	2.7
모름/무응답	(11)	1.1
합계	(1000)	100.0

전 체

- '스트레스도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말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1.0%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7.1%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88.1%가 스트레스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0.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스트레스도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30대(93.4%) △사무/관리/전문직(91.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으며, △50대(15.1%) 및 60대(16.4%) △중졸이하(24.0%) △생산/기술/노무직(20.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58〉 스트레스를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단위: %)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계
성별								
남자	(499)	48.9	37.3	86.2	10.0	3.6	13.6	0.2
여자	(501)	53.1	36.9	90.0	6.2	1.8	8.0	2.0
연령								
10대 (15세~19세)	(84)	47.6	41.7	89.3	7.1	3.6	10.7	0.0
20대	(217)	53.0	37.8	90.8	7.8	1.4	9.2	0.0
30대	(242)	57.9	35.5	93.4	4.5	2.1	6.6	0.0
40대	(218)	56.4	30.7	87.2	9.2	2.8	11.9	0.9
50대	(172)	36.6	45.3	82.0	11.6	3.5	15.1	2.9
60대 (60세~65세)	(67)	43.3	34.3	77.6	10.4	6.0	16.4	6.0
학력								
중졸 이하	(75)	32.0	34.7	66.7	17.3	6.7	24.0	9.3
고졸	(281)	52.7	37.7	90.4	7.1	1.8	8.9	0.7
대졸 이상	(640)	52.5	37.2	89.7	7.5	2.5	10.0	0.3
모름/무응답	(4)	50.0	25.0	75.0	0.0	25.0	25.0	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59.0	32.7	91.7	7.0	1.3	8.3	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46.1	42.2	88.2	5.9	4.9	10.8	1.0
생산/기술/노무직	(39)	53.8	23.1	76.9	17.9	2.6	20.5	2.6
자영업	(130)	52.3	34.6	86.9	8.5	3.1	11.5	1.5
학생	(158)	46.2	42.4	88.6	8.9	2.5	11.4	0.0
주부	(178)	45.5	39.3	84.8	9.0	2.2	11.2	3.9
무직/퇴직/기타	(72)	44.4	44.4	88.9	5.6	5.6	11.1	0.0
모름/무응답	(6)	33.3	33.3	66.7	16.7	16.7	33.3	0.0
경제수준								
상	(55)	52.7	29.1	81.8	12.7	5.5	18.2	0.0
중	(743)	49.8	38.6	88.4	7.5	3.0	10.5	1.1
하	(196)	55.1	33.7	88.8	9.2	1.0	10.2	1.0
모름/무응답	(6)	50.0	33.3	83.3	0.0	0.0	0.0	16.7
신체건강상태								
좋은 편	(551)	50.3	37.6	87.8	8.2	3.1	11.3	0.9
보통	(377)	51.7	37.1	88.9	8.5	1.6	10.1	1.1
나쁜 편	(72)	52.8	33.3	86.1	5.6	5.6	11.1	2.8
정신건강상태								
좋은 편	(647)	49.6	38.3	87.9	8.2	2.8	11.0	1.1
보통	(297)	53.5	35.0	88.6	7.7	2.7	10.4	1.0
나쁜 편	(53)	52.8	35.8	88.7	9.4	1.9	11.3	0.0

2)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문9) 다음에 볼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9-2)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도 질병에 해당한다.

〈표59〉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596)	59.6
대체로 그런 편이다	(320)	32.0
별로 그렇지 않다	(54)	5.4
전혀 그렇지 않다	(20)	2.0
모름/무응답	(10)	1.0
합계	(1000)	100.0

전체

-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도 질병에 해당한다’라는 말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9.6%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2.0%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91.6%가 과도한 음주를 질병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반면, 7.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도 질병에 해당한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록 높으며, △30대(95.0%) 및 40대(94.5%) △주부(94.4%) △경제수준 중(92.5%)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임(94.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고, △10대(11.9%) 및 20대(12.4%) △생산/기술/노무직(10.3%) 및 학생(10.8%) △경제수준 상(12.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60〉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단위 : %)									
	사례 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모름	모름	계	
전체	(1000)	59.6	32.0	91.6	5.4	2.0	7.4	1.0	100.0
성별									
남자	(499)	55.7	34.1	89.8	6.8	2.6	9.4	0.8	100.0
여자	(501)	63.5	29.9	93.4	4.0	1.4	5.4	1.2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58.3	29.8	88.1	7.1	4.8	11.9	0.0	100.0
20대	(217)	59.4	28.1	87.6	8.8	3.7	12.4	0.0	100.0
30대	(242)	59.5	35.5	95.0	3.3	0.8	4.1	0.8	100.0
40대	(218)	66.5	28.0	94.5	4.1	0.5	4.6	0.9	100.0
50대	(172)	57.0	33.7	90.7	4.7	2.9	7.6	1.7	100.0
60대 (60세~65세)	(67)	46.3	43.3	89.6	6.0	0.0	6.0	4.5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60.6	31.1	91.7	5.7	2.2	7.9	0.3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58.8	31.4	90.2	5.9	2.0	7.8	2.0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53.8	33.3	87.2	7.7	2.6	10.3	2.6	100.0
자영업	(130)	60.0	32.3	92.3	6.2	1.5	7.7	0.0	100.0
학생	(158)	58.2	31.0	89.2	7.0	3.8	10.8	0.0	100.0
주부	(178)	60.7	33.7	94.4	2.8	0.6	3.4	2.2	100.0
무직/퇴직/기타	(72)	58.3	33.3	91.7	4.2	1.4	5.6	2.8	100.0
모름/무응답	(6)	66.7	33.3	100.0	0.0	0.0	0.0	0.0	100.0
경제수준									
상	(55)	58.2	29.1	87.3	9.1	3.6	12.7	0.0	100.0
중	(743)	58.1	34.3	92.5	4.8	2.0	6.9	0.7	100.0
하	(196)	65.3	24.5	89.8	6.6	1.5	8.2	2.0	100.0
모름/무응답	(6)	66.7	16.7	83.3	0.0	0.0	0.0	16.7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59.3	31.8	91.1	5.8	2.0	7.8	1.1	100.0
보통	(377)	57.3	34.7	92.0	4.8	2.4	7.2	0.8	100.0
좋지 않은 편	(72)	73.6	19.4	93.1	5.6	0.0	5.6	1.4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58.1	33.5	91.7	5.6	2.0	7.6	0.8	100.0
보통	(297)	60.6	30.6	91.2	5.7	2.0	7.7	1.0	100.0
좋지 않은 편	(53)	71.7	22.6	94.3	1.9	1.9	3.8	1.9	100.0

3) 우울증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문9) 다음에 불러드리는 문장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9-3)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표61〉 우울증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523)	52.3
대체로 그런 편이다	(369)	36.9
별로 그렇지 않다	(65)	6.5
전혀 그렇지 않다	(19)	1.9
모름/무응답	(24)	2.4
합계	(1000)	100.0

전체

-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말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2.3%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6.9%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89.2%가 우울증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응답한 반면, 8.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말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고, △30대(94.6%) △월 가구소득 300-399만원(92.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중졸이하(17.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62〉 우울증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는 정도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편 이다	③+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계
전체	(1000)	52.3	36.9	89.2	6.5	1.9	8.4	2.4	100.0
성별									
남자	(499)	54.3	34.1	88.4	7.4	1.8	9.2	2.4	100.0
여성	(501)	50.3	39.7	90.0	5.6	2.0	7.6	2.4	100.0
연령									
10대(15세-19세)	(84)	54.8	38.1	92.9	7.1	0.0	7.1	0.0	100.0
20대	(217)	46.5	41.5	88.0	8.8	2.3	11.1	0.9	100.0
30대	(242)	59.5	35.1	94.6	4.1	1.2	5.4	0.0	100.0
40대	(218)	53.7	36.2	89.9	5.0	1.4	6.4	3.7	100.0
50대	(172)	50.6	34.9	85.5	7.6	3.5	11.0	3.5	100.0
60대(60세-65세)	(67)	41.8	34.3	76.1	9.0	3.0	11.9	11.9	100.0
학력									
중졸 이하	(75)	40.0	32.0	72.0	13.3	4.0	17.3	10.7	100.0
고졸	(281)	56.6	35.2	91.8	5.7	1.1	6.8	1.4	100.0
대재 이상	(640)	51.7	38.3	90.0	6.1	2.0	8.1	1.9	100.0
모름 / 무응답	(4)	75.0	25.0	100.0	0.0	0.0	0.0	0.0	100.0
월 가구 소득									
99 만원 이하	(44)	52.3	27.3	79.5	4.5	2.3	6.8	13.6	100.0
100 ~ 199 만원	(112)	46.4	41.1	87.5	8.0	1.8	9.8	2.7	100.0
200 ~ 299 만원	(193)	50.3	36.3	86.5	7.8	3.1	10.9	2.6	100.0
300 ~ 399 만원	(203)	59.1	33.0	92.1	5.9	1.5	7.4	0.5	100.0
400 ~ 499 만원	(144)	49.3	41.0	90.3	5.6	1.4	6.9	2.8	100.0
500 만원 이상	(207)	55.1	36.7	91.8	5.3	1.0	6.3	1.9	100.0
모름 / 무응답	(97)	47.4	40.2	87.6	8.2	3.1	11.3	1.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53.9	35.8	89.7	7.1	2.0	9.1	1.3	100.0
보통	(377)	51.2	38.5	89.7	5.8	1.6	7.4	2.9	100.0
좋지 않은 편	(72)	45.8	37.5	83.3	5.6	2.8	8.3	8.3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54.6	36.6	91.2	5.4	1.4	6.8	2.0	100.0
보통	(297)	49.8	38.0	87.9	7.4	2.7	10.1	2.0	100.0
좋지 않은 편	(53)	39.6	35.8	75.5	13.2	3.8	17.0	7.5	100.0

8.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및 이용의향

1)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문10) ____님은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알고 계십니까?

〈표63〉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아주 잘 안다	(37)	3.7
이름은 들어 보았다	(209)	20.9
잘 모른다	(317)	31.7
처음 듣는 이름이다	(437)	43.7
합계	(1000)	100.0

전체

-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가 ‘아주 잘 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0.9%가 ‘이름은 들어 보았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24.6%가 정신보건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75.4%는 모른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고, △40대(32.6%) 및 60대(35.8%) △주부(30.9%)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34.1%)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임(33.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모른다’는 응답비율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10대(86.9%) 및 20대(83.4%) △학생(84.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64〉 정신보건센터 인지도

(단위 : %)

	사례수 (명)	① 아주 잘 안다	② 이름은 들어 보았다	①+②	③ 잘 모른다	④ 처음 듣는 이름이다	③+④	계
전체	(1000)	3.7	20.9	24.6	31.7	43.7	75.4	100.0
성별								
남자	(499)	2.4	21.4	23.8	29.9	46.3	76.2	100.0
여성	(501)	5.0	20.4	25.3	33.5	41.1	74.7	100.0
연령								
10대(15세~19세)	(84)	1.2	11.9	13.1	29.8	57.1	86.9	100.0
20대	(217)	3.7	12.9	16.6	30.9	52.5	83.4	100.0
30대	(242)	2.5	21.1	23.6	29.3	47.1	76.4	100.0
40대	(218)	6.0	26.6	32.6	34.4	33.0	67.4	100.0
50대	(172)	1.7	25.6	27.3	36.6	36.0	72.7	100.0
60대(60세~65세)	(67)	9.0	26.9	35.8	23.9	40.3	64.2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4.4	19.4	23.8	30.8	45.4	76.2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4.9	20.6	25.5	34.3	40.2	74.5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5.1	23.1	28.2	38.5	33.3	71.8	100.0
자영업	(130)	3.1	24.6	27.7	32.3	40.0	72.3	100.0
학생	(158)	1.3	13.9	15.2	29.7	55.1	84.8	100.0
주부	(178)	3.4	27.5	30.9	34.8	34.3	69.1	100.0
무직/퇴직/기타	(72)	5.6	20.8	26.4	25.0	48.6	73.6	100.0
모름/무응답	(6)	0.0	0.0	0.0	16.7	83.3	100.0	100.0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	(44)	13.6	20.5	34.1	25.0	40.9	65.9	100.0
100 - 199만원	(112)	7.1	15.2	22.3	22.3	55.4	77.7	100.0
200 - 299만원	(193)	2.1	21.2	23.3	28.5	48.2	76.7	100.0
300 - 399만원	(203)	3.0	21.2	24.1	36.9	38.9	75.9	100.0
400 - 499만원	(144)	2.1	25.7	27.8	35.4	36.8	72.2	100.0
500만원이상	(207)	3.4	20.8	24.2	37.7	38.2	75.8	100.0
모름/무응답	(97)	3.1	19.6	22.7	22.7	54.6	77.3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편	(551)	3.4	20.9	24.3	34.1	41.6	75.7	100.0
보통	(377)	2.9	20.4	23.3	31.0	45.6	76.7	100.0
좋지 않은편	(72)	9.7	23.6	33.3	16.7	50.0	66.7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편	(647)	4.2	21.6	25.8	34.0	40.2	74.2	100.0
보통	(297)	2.4	21.2	23.6	30.0	46.5	76.4	100.0
좋지 않은편	(53)	5.7	11.3	17.0	15.1	67.9	83.0	100.0

2)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의향

문11) ____님은 스트레스, 우울증, 알코올의존성,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____님이나 가족을 위하여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표65〉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의향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꼭 이용하고 싶다	(111)	11.1
이용할 것 같다	(502)	50.2
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258)	25.8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119)	11.9
모름/무응답	(10)	1.0
합계	(1000)	100.0

전체

- ‘스트레스, 우울증, 알코올의존성,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본인이나 가족을 위하여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1.1%가 ‘꼭 이용하고 싶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0.2%가 ‘이용할 것 같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61.3%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37.7%는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에 관한 상담이나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30대(66.5%) △동북부지역 거주자(65.2%) △월가구소득 100-199만원(64.3%) △정신적 건강상태가 보통임(67.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으며, △60대(52.2%)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45.5%)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임(41.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66〉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의향

(단위 : %)

	사례수 (명)	① 꼭 이용할 것 같다	② 이용할 것 같다	③ 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④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11.1	50.2	61.3	25.8	11.9	37.7	100.0
성별								
남	(499)	9.6	44.1	53.7	30.3	14.8	45.1	100.0
여	(501)	12.6	56.3	68.9	21.4	9.0	30.3	100.0
연령								
10대(15세~19세)	(84)	4.8	59.5	64.3	23.8	10.7	34.5	100.0
20대	(217)	8.8	54.4	63.1	28.1	8.8	36.9	100.0
30대	(242)	13.2	53.3	66.5	22.3	10.7	33.1	100.0
40대	(218)	15.1	47.2	62.4	25.2	11.9	37.2	100.0
50대	(172)	11.0	45.3	56.4	25.6	16.3	41.9	100.0
60대(60세~65세)	(67)	6.0	35.8	41.8	35.8	16.4	52.2	100.0
거주지역								
도시/서북지역	(163)	10.4	49.1	59.5	24.5	14.7	39.3	100.0
동북부지역	(322)	12.4	52.8	65.2	21.4	12.1	33.5	100.0
남부지역	(348)	10.6	47.4	58.0	30.7	10.1	40.8	100.0
강남3구	(167)	10.2	52.1	62.3	25.1	12.6	37.7	100.0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	(44)	25.0	27.3	52.3	25.0	20.5	45.5	100.0
100 - 199만원	(112)	12.5	51.8	64.3	26.8	8.0	34.8	100.0
200 - 299만원	(193)	7.3	54.4	61.7	29.0	8.3	37.3	100.0
300 - 399만원	(203)	11.8	49.8	61.6	26.1	11.8	37.9	100.0
400 - 499만원	(144)	12.5	51.4	63.9	25.0	11.1	36.1	100.0
500만원이상	(207)	13.0	47.8	60.9	23.7	14.5	38.2	100.0
모름/무응답	(97)	3.1	54.6	57.7	23.7	15.5	39.2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10.9	49.4	60.3	25.0	13.8	38.8	100.0
보통	(377)	10.3	50.9	61.3	27.3	10.1	37.4	100.0
좋지 않은 편	(72)	16.7	52.8	69.4	23.6	6.9	30.6	10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 편	(647)	10.4	47.6	58.0	26.9	14.2	39.1	100.0
보통	(297)	11.4	56.2	67.7	22.9	8.1	31.0	100.0
좋지 않은 편	(53)	18.9	47.2	66.0	28.3	5.7	34.0	100.0

3) 정신건강 관련 이용할 의향이 있는 서비스 종류(중복응답)

문11-1] ____님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다음 중 어떤 상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중복응답)

〈표67〉 정신건강 관련 이용할 의향이 있는 서비스 종류

구분	응답 비율 (%)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67.9
우울증세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40.0
자녀의 정신건강 상담이나 서비스	37.5
알콜의존증세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19.1
자살예방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13.9
모름/무응답	4.6

* 본 문항은 복수응답으로 응답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전체

-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 중 이용하고 싶은 상담이나 서비스로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라는 응답이 67.9%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세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40.0%), ‘자녀의 정신건강 상담이나 서비스’(37.5%) 등의 순임.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상담이나 서비스로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라는 응답비율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고,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으며, △사무/관리/전문직(72.1%) 및 학생(84.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우울증세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라는 응답비율은 △10대(46.3%) 및 20대(53.3%) △중졸이하(45.7%) △사무/관리/전문직(44.7%) 및 학생(44.1%), 무직/퇴직/기타(44.4%) △미혼자(48.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68〉 정신건강 관련 이용할 의향이 있는 서비스 종류

(단위 : %)

	사례 수 (명)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우울증세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자녀의 정신 건강 상담이나 서비스	알콜 의존성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자살예방에 관한 상담이나 서비스	모름/무응답
전체	(613)	67.9	40.0	37.5	19.1	13.9	4.6
성별							
남자	(268)	70.5	38.1	31.0	19.4	14.2	4.9
여자	(345)	65.8	41.4	42.6	18.8	13.6	4.3
연령							
10대 (15세-19세)	(54)	83.3	46.3	22.2	16.7	13.0	1.9
20대	(137)	81.8	53.3	29.9	18.2	19.7	1.5
30대	(161)	68.3	39.1	37.9	18.0	13.7	6.2
40대	(136)	58.8	32.4	52.9	19.1	11.0	3.7
50대	(97)	54.6	30.9	36.1	21.6	9.3	6.2
60대 (60세-65세)	(28)	57.1	35.7	32.1	25.0	17.9	14.3
거주지역							
도심/서북지역	(97)	72.2	39.2	39.2	24.7	13.4	8.2
동북부지역	(210)	66.2	42.9	40.0	19.5	14.3	4.3
남부지역	(202)	68.3	40.6	34.7	18.3	13.9	3.0
강남3구	(104)	66.3	33.7	36.5	14.4	13.5	4.8
학력							
중졸이하	(35)	54.3	45.7	31.4	20.0	17.1	5.7
고졸	(177)	65.0	33.3	39.5	24.9	14.7	3.4
대재이상	(398)	70.1	42.7	37.4	16.6	13.3	4.8
모름/무응답	(3)	100.0	0.0	0.0	0.0	0.0	33.3
직업							
사무/관리/전문	(190)	72.1	44.7	33.7	15.8	12.1	3.2
영업/판매/서비스직	(67)	61.2	38.8	34.3	16.4	14.9	9.0
생산/기술/노무직	(23)	52.2	26.1	47.8	8.7	4.3	4.3
자영업	(76)	65.8	35.5	31.6	27.6	13.2	9.2
학생	(93)	84.9	44.1	30.1	19.4	17.2	2.2
주부	(115)	54.8	33.9	55.7	20.0	13.9	2.6
무직/퇴직/기타	(45)	68.9	44.4	33.3	26.7	17.8	6.7
모름/무응답	(4)	75.0	25.0	25.0	0.0	25.0	0.0
경제수준							
상	(31)	74.2	38.7	35.5	12.9	12.9	12.9
중	(465)	68.6	40.4	38.9	19.4	14.0	3.9
하	(113)	61.9	37.2	33.6	20.4	12.4	5.3
모름/무응답	(4)	100.0	75.0	0.0	0.0	50.0	0.0
혼인상태							
미혼	(255)	79.2	48.2	23.9	17.3	17.3	3.9
기혼	(351)	59.3	34.2	47.0	20.8	11.7	5.1
기타	(7)	85.7	28.6	57.1	0.0	0.0	0.0

4)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 인지 여부

문12) ____님은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니까?

〈표69〉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 인지도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
들어본 적이 있다	(50)	5.0
들어본 적이 없다	(995)	95.0
합계	(1000)	100.0

전체

-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0%임.

응답자 특성별

-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높으며, △40대(7.3%) △영업/판매/서비스직(6.9%) 및 주부(9.0%)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임(6.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으며, △10대(98.8%) 및 20대(97.2%) △생산/기술/노무직(10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70〉 정신건강 브랜드 ‘블루터치’ 인지도부

(단위 : %)

	사례 수 (명)	들어 본적이 있다	들어 본적이 없다	계
전체	(1000)	5.0	95.0	100.0
성별				
남자	(499)	2.8	97.2	100.0
여자	(501)	7.2	92.8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1.2	98.8	100.0
20대	(217)	2.8	97.2	100.0
30대	(242)	5.0	95.0	100.0
40대	(218)	7.3	92.7	100.0
50대	(172)	6.4	93.6	100.0
60대 (60세-65세)	(67)	6.0	94.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4.8	95.2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6.9	93.1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0.0	100.0	100.0
자영업	(130)	4.6	95.4	100.0
학생	(158)	1.9	98.1	100.0
주부	(178)	9.0	91.0	100.0
무직/퇴직/기타	(72)	4.2	95.8	100.0
모름/무응답	(6)	0.0	100.0	100.0
경제수준				
상	(55)	5.5	94.5	100.0
중	(743)	5.4	94.6	100.0
하	(196)	3.6	96.4	100.0
모름/무응답	(6)	0.0	100.0	100.0
신체적건강상태				
좋은 편	(551)	5.6	94.4	100.0
보통	(377)	3.7	96.3	100.0
좋지 않은 편	(72)	6.9	93.1	100.0

9. 정신질환자 수용 관련 태도

1)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필요성에 대한 태도

문13) ____님은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자도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거주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71〉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필요성에 대한 태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466)	46.6
대체로 그런 편이다	(373)	37.3
별로 그렇지 않다	(94)	9.4
전혀 그렇지 않다	(47)	4.7
모름/무응답	(20)	2.0
합계	(1000)	100.0

전체

-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자도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거주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6.6%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7.3%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83.9%가 정신질환자도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14.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정신질환자도 최대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응답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20대(86.6%) △도심/서북지역 거주자(85.9%) △고졸(86.8%) △학생(86.1%) 및 △주부(87.1%) △월가구소득 500만원이상(86.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30대(16.1%) △강남3구 거주자 (16.8%) △중졸이하(18.7%) △생산/기술/노무직 (20.5%) △월가구소득 400-499만원(16.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7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계
전체	(1000)	46.6	37.3	83.9	9.4	4.7	14.1	2.0	100.0
성별									
남	(499)	43.7	37.5	81.2	10.8	6.2	17.0	1.8	100.0
여	(501)	49.5	37.1	86.6	8.0	3.2	11.2	2.2	100.0
연령									
10대 (15세-19세)	(84)	36.9	47.6	84.5	11.9	3.6	15.5	0.0	100.0
20대	(217)	43.3	43.3	86.6	9.2	2.8	12.0	1.4	100.0
30대	(242)	45.9	36.8	82.6	11.6	4.5	16.1	1.2	100.0
40대	(218)	47.2	36.2	83.5	7.8	6.0	13.8	2.8	100.0
50대	(172)	51.2	32.0	83.1	8.1	7.0	15.1	1.7	100.0
60대 (60세-65세)	(67)	58.2	23.9	82.1	7.5	3.0	10.4	7.5	100.0
거주지역									
도심/서북지역	(163)	45.4	40.5	85.9	8.6	4.9	13.5	0.6	100.0
동북부지역	(322)	46.9	37.6	84.5	10.2	3.1	13.4	2.2	100.0
남부지역	(348)	46.6	37.4	83.9	9.2	4.6	13.8	2.3	100.0
강남3구	(167)	47.3	33.5	80.8	9.0	7.8	16.8	2.4	100.0
학력									
중졸이하	(75)	38.7	37.3	76.0	12.0	6.7	18.7	5.3	100.0
고졸	(281)	50.5	36.3	86.8	8.2	3.6	11.7	1.4	100.0
대재이상	(640)	45.9	37.8	83.8	9.5	4.8	14.4	1.9	100.0
모름/무응답	(4)	25.0	25.0	50.0	25.0	25.0	50.0	0.0	100.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46.3	38.4	84.8	10.5	4.4	14.9	0.3	100.0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47.1	34.3	81.4	10.8	5.9	16.7	2.0	100.0
생산/기술/노무직	(39)	33.3	43.6	76.9	12.8	7.7	20.5	2.6	100.0
자영업	(130)	50.0	31.5	81.5	6.9	9.2	16.2	2.3	100.0
학생	(158)	39.2	46.8	86.1	9.5	2.5	12.0	1.9	100.0
주부	(178)	56.2	30.9	87.1	7.3	1.7	9.0	3.9	100.0
무직/퇴직/가타	(72)	41.7	41.7	83.3	8.3	4.2	12.5	4.2	100.0
모름/무응답	(6)	33.3	0.0	33.3	33.3	33.3	66.7	0.0	100.0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	(44)	56.8	22.7	79.5	4.5	9.1	13.6	6.8	100.0
100 - 199만원	(112)	48.2	37.5	85.7	8.0	5.4	13.4	0.9	100.0
200 - 299만원	(193)	42.0	42.5	84.5	10.9	3.1	14.0	1.6	100.0
300 - 399만원	(203)	50.7	34.0	84.7	10.3	3.9	14.3	1.0	100.0
400 - 499만원	(144)	43.8	38.2	81.9	11.1	4.9	16.0	2.1	100.0
500만원이상	(207)	51.7	34.8	86.5	7.7	3.4	11.1	2.4	100.0
모름/무응답	(97)	34.0	44.3	78.4	9.3	9.3	18.6	3.1	100.0

2)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수용에 대한 태도

문14) ____님은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세요.

〈표73〉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수용에 대한 태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정말 그렇다	(202)	20.2
대체로 그런 편이다	(409)	40.9
별로 그렇지 않다	(268)	26.8
전혀 그렇지 않다	(93)	9.3
모름/무응답	(28)	2.8
합계	(1000)	100.0

전체

-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0.2%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0.9%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함.
- 전체적으로 61.1%가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36.1%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 수 있다’는 응답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남부지역 거주자(66.1%) △학생(77.8%) △월가구소득 200-299만원(66.3%) 및 500만원이상(66.2%) △미혼자(70.8%)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임(66.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받아들이 수 없다’는 응답비율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높으며, △40대(40.8%) △강남3구 거주자(42.5%) △주부(47.2%) △월가구소득 400-499만원(44.4%) △기혼자(42.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74〉 가까운 이웃에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수용에 대한 태도

		(단위 : %)							
		사례수 (명)	① 정말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전체	총	(1000)	20.2	40.9	61.1	26.8	9.3	36.1	2.8
성별	남자	(499)	25.3	41.1	66.3	23.8	7.6	31.5	2.2
	여자	(501)	15.2	40.7	55.9	29.7	11.0	40.7	3.4
연령	10대 (15세~19세)	(84)	23.8	58.3	82.1	10.7	6.0	16.7	1.2
	20대	(217)	20.7	46.1	66.8	27.2	5.1	32.3	0.9
	30대	(242)	13.6	45.9	59.5	29.8	9.5	39.3	1.2
	40대	(218)	19.3	37.2	56.4	27.5	13.3	40.8	2.8
	50대	(172)	22.7	32.0	54.7	27.3	11.6	39.0	6.4
	60대 (60세~65세)	(67)	34.3	19.4	53.7	31.3	7.5	38.8	7.5
거주지역	도심/서북지역	(163)	23.3	37.4	60.7	28.2	7.4	35.6	3.7
	동북부지역	(322)	18.6	40.7	59.3	27.6	9.3	37.0	3.7
	남부지역	(348)	21.0	45.1	66.1	24.7	7.8	32.5	1.4
	강남3구	(167)	18.6	35.9	54.5	28.1	14.4	42.5	3.0
직업	사무/관리/전문	(315)	18.7	43.8	62.5	28.9	7.0	35.9	1.6
	영업/판매/서비스직	(102)	21.6	36.3	57.8	27.5	11.8	39.2	2.9
	생산/기술/노무직	(39)	15.4	38.5	53.8	28.2	10.3	38.5	7.7
	자영업	(130)	25.4	30.8	56.2	24.6	16.9	41.5	2.3
	학생	(158)	24.1	53.8	77.8	16.5	4.4	20.9	1.3
	주부	(178)	14.6	32.0	46.6	34.8	12.4	47.2	6.2
	무직/퇴직/기타	(72)	23.6	51.4	75.0	20.8	2.8	23.6	1.4
	모름/무응답	(6)	16.7	0.0	16.7	50.0	33.3	83.3	0.0
월가구소득	99만원이하	(44)	31.8	25.0	56.8	27.3	6.8	34.1	9.1
	100 - 199만원	(112)	28.6	33.9	62.5	26.8	7.1	33.9	3.6
	200 - 299만원	(193)	19.2	47.2	66.3	21.8	10.4	32.1	1.6
	300 - 399만원	(203)	18.2	37.9	56.2	28.6	12.3	40.9	3.0
	400 - 499만원	(144)	13.9	39.6	53.5	34.7	9.7	44.4	2.1
	500만원이상	(207)	20.3	45.9	66.2	25.1	7.2	32.4	1.4
	모름/무응답	(97)	20.6	41.2	61.9	24.7	8.2	33.0	5.2
혼인상태	미혼	(407)	20.6	50.1	70.8	21.4	6.4	27.8	1.5
	기혼	(581)	19.3	34.8	54.0	30.8	11.5	42.3	3.6
	기타	(12)	50.0	25.0	75.0	16.7	0.0	16.7	8.3
신체적건강상태	좋은편	(551)	22.1	40.7	62.8	26.7	7.4	34.1	3.1
	보통	(377)	16.7	41.9	58.6	27.1	11.4	38.5	2.9
	좋지않은편	(72)	23.6	37.5	61.1	26.4	12.5	38.9	0.0
정신적건강상태	좋은편	(647)	21.9	39.9	61.8	26.6	8.8	35.4	2.8
	보통	(297)	15.2	43.8	58.9	27.9	10.4	38.4	2.7
	좋지않은편	(53)	26.4	39.6	66.0	22.6	9.4	32.1	1.9